



## 2023 T&C Foundation 연구공모 보고서

### Ageism 문제의식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한국 사회의 세대간 갈등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 및 텍스트마이닝 분석

김경원(인천대학교),  
신수민(유한대학교), 허준녕(중앙대광명병원)

# 목 차

<b>제1장 연구 개요</b> .....	<b>1</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진행 .....	3
제2절 연구진 소개 .....	6
제3절 연구일정 및 빅데이터 수집 .....	15
 <b>제2장 치매(Dementia)와 인지저하증</b> .....	<b>18</b>
제1절 들어가며 .....	20
제2절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 국내의 치매관리 동향 .....	25
제3절 해외의 치매 정책 및 대응 .....	29
제4절 치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	61
제5절 나가며 .....	65
 <b>제3장 Ageism &amp; 세대갈등</b> .....	<b>69</b>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7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74
제3절 빅데이터 감성분석 .....	79
제4절 인터뷰 질적분석 .....	89
제5절 인사이트 .....	96
 <b>제4장 마무리</b> .....	<b>98</b>
제1절 고령화 통계 .....	100
제2절 못다한 이야기 .....	119



# 제1장

##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진행

제2절 연구진 소개

제3절 연구 일정 및 빅데이터 수집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진행

본 보고서는 티앤씨재단에서 연구 공모한 2023년도 <치매(Dementia)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산>을 위한 학제간 융복합 연구의 연구 진행 과정을 정리하고 산출물의 설명을 반영 및 정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첫 출발은 뉴스 미디어 빅데이터에서 치매에 대한 인식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생성될 미디어의 콘텐츠가 대중에게 미칠 긍정·부정 인식을 미리 예측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미래의 긍정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재단을 통해 전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연구진의 전문성을 담은 제안서였다. 하지만 연구진의 전문성 보다 재단이 기획하고 목표로 설정한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대중들에게 무겁지도 그렇다고 가볍지 않으면서도 쉽게 교육처럼 녹아들 수 있는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찾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구진에게는 더욱 도전적인 중요 목표가 설정되었다. 따라서 티앤씨재단과 수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감사하게도 재단의 실무진들이 우리 연구진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다방면으로 아낌없는 의견과 방향을 제안해 주셨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진은 재단의 핵심을 이해하고 전시의 방향을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연구진과 재단은 치매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 2가지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첫째로 이미 고령화 사회를 겪어본 다른 글로벌 국가들은 어떻게 치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했던 노력들을 파악하기 위한 사례조사가 필요했다. 조사 결과들은 전시내용을 뒷받침 할 탄탄한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한국사회가 겪게 될 미래라는 가정하에 향후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미리 고민해 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단과 연구진이 그 고민들을 미리 해 본 결과, 결국 치매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다소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이고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 세대갈등의 원인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 4 티앤씨재단 연구공모 보고서

되었다. 따라서 둘째로 세대갈등, 노인혐오 또는 노인차별로 표현될 수 있는 “연령주의(Ageism)”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 동시대의 다양한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대다수가 될 수 있는 노인층의 차매를 포함한 다양한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었고 이를 뉴스 미디어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표 1-1〉 치매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산을 위한 2가지 연구 검토와 배경

주제	초기 제안서	변경안	추가 변경안
	치매인식개선 광고추천	치매인식개선	연령주의 Ageism (세대갈등, 노인차별 및 혐오)
대응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빅데이터 콘텐츠별 치매인식 현황분석</li> <li>- 치매인식 긍정/부정 콘텐츠 원인 분석</li> <li>- 긍정적 치매 인식을 위한 콘텐츠 방향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인식을 개선하려는 글로벌 사례조사</li> <li>- 전시내용을 뒷받침할 탄탄한 근거 제시</li> <li>- 빅데이터로 치매인식의 긍정/부정 트렌드 분석</li> <li>- 치매인식도 세대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인식</li> </ul>	<p>[연령주의에 대한 세대간 접점/공감대 조사에 앞서 현 상황 진단 및 향후 대응을 위한 사실확인]에 집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주의로 나타나는 노인혐오, 차별 등 세대갈등 빅데이터 분석</li> <li>- 향후 초고령화사회에 앞서, 노인혐오 및 노인차별 등 세대갈등의 해결 노력 가능성 진단을 위한 사례 분</li> </ul>
활용데이터	<p>[미디어 콘텐츠 공/부정 의견 빅데이터(양적연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뉴스같은 사실기반 콘텐츠 공/부정 의견</li> <li>2) 영화같은 의도반영 콘텐츠 공/부정 의견</li> <li>3) 왜곡 감소를 위한 실제 치매가족의 의견</li> </ol>	<p>[글로벌 사례연구(질적연구) 및 빅데이터(양적연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국민과 서울시민의 치매인식도 실태조사</li> <li>2) WHO 국제치매공동대응계획</li> <li>3) 미국,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 치매정책 조사</li> <li>4) 일본의 “신오렌지 플랜” 조사 및 우리나라 특징</li> <li>5)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일본 사례조사</li> <li>6) FSCRT 등 선택적 회상 검사를 통한 치매 파악 기술</li> </ol>	<p>[AS-IS 현안분석: 빅데이터(양적연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뉴스기사에서 노인에 대해 다루는 노인의 특성 또는 공부정 감성 트렌드 분석</li> <li>2) 젊은층이 노인을 바라보는 이미지와 태도는 어떠한지 노인차별/노인혐오 언급되는 키워드 트렌드 분석</li> <li>3) 젊은층과 노인층의 세대갈등을 다루는 뉴스기사의 댓글의견에서 세대를 칭하는 명칭, 내포된 이미지, 태도나 인식에 대한 텍스트 분석</li> </ol> <p>[TO-BE 방향분석: 인터뷰(질적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년층 및 청장년층(노년과의 접점이 있는) 대상 FGI</li> </ul>
변경안 도출을 위한 연구진과 재단의 고민과 노력			
상세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혐오/차별에 대한 인식을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소셜 빅데이터만으로 파악하는 것 이외에 실제 대중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질적연구도 필요</li> <li>- 전시 테마공간에 연구내용이 활용되려면 노인분들의 개인적이고 자전적인 이야기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서사 파악을 위한 심층 인터뷰 도움 될 것</li> <li>- 기 전시되고 있는 테마공간에 활용되는 인용구나 데이터 단어출처를 개인적 이야기 또는 상징적 인터뷰에서 오는 울림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 필요</li> <li>- 인터랙티브한 사라는 일기장, 탄소배출량 같은 인포그래픽, 인식변화에 따른 영상이미지 변화 등이 활용될 수도 있음</li> <li>- 우리나라의 현 실태 및 상황,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해외사례에서 세대간 갈등 해결 방식 등은 노인혐오/차별에 대해 화두를 던지는 연구도입으로 활용</li> <li>- 청장년과 노년층 비교를 통한 감정공감대 확인과 해결 원인 후보들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면 좋을 것</li> <li>- 빅데이터분석은 아니지만 수집된 인터뷰 녹취록 자료를 데이터로 활용하여 텍스트 분석을 통한 시각화(워드클라우드, 의미연결망 등) 제시 계획</li> </ul>		

COVID-19는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우리 모두는 유례없는 팬데믹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가 되어 함께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COVID-19가 잠잠해진 지금, COVID-19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분리하던 것은 사회적 고립이 되었고 얼굴을 마주하기보다 비대면에 익숙해진 일상은 익명성의 뒤에 숨어 다시 한번 깊고 오래된 병폐 중 하나인 다양한 갈등을 포함한 연령주의(Ageism)로 드러나고 있었다. 우리 사회 속에서 노인들은 한결 같이 나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반면 젊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존재로 서로를 묘사하고 있다. 연령에 기반하여 우리가 마주한 연령주의는 “다르게 느끼고(편견) 다르게 생각하며(고정관념) 다르게 행동하는(차별)” 것들로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세대갈등, 노인차별, 노인혐오 등의 모습이 만연한 현실에서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흐른다”라는 점을 통해 세대 간 공감을 얻고자 하는 본 연구는 연령주의가 만연하고 은밀하게 서서히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 오고자 한다. 특정 집단이 명확히 구분되는 성차별이나 장애인차별과 달리 연령주의는 삶의 어떤 시점에 있느냐로 다른 연령 집단에 속하게 되므로, 시간에 따라 연령주의에서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즉, 연령주의는 대체로 지각하지 못하고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 사이에서 연령주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증가, 빈곤 및 경제적 불안, 삶의 질 저하 등과 관련 있을 수 있고, 젊은 층에서 연령주의는 연구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고용, 건강, 주거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 연령주의는 결국 다르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다른 누군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생애 전반에 걸친 나 스스로에 대한 자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형태의 연령주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청장년층은 일자리를 얻는 것에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고, 노년층은 고령으로 인해 인력감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의료 서비스를 분류하면 노인들의 건강권을 제한하게 될지도 모른다. 모든 곳의 사람들의 건강, 웰빙, 그리고 존엄성을 보장하려면 우리는 모든 나라가 COVID-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연령주의에 대항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아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본 연구의 주된 메시지는 COVID-19를 넘어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의 현실을 빅데이터를 통해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하고, 연령차별을 예방하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가 나이듦(Ageing)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작은 변화를 일으켜 개인과 사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함께하는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함에 있다.

## 제2절 연구진 소개

본 연구의 책임자는 학위과정에서 주로 연구하였던 실물자산과 경제자산을 넘어 암호화폐, 서비스, 광고마케팅, 포트폴리오 예측, 의료 성능, 공정 자동화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구로 영역을 확장한 인천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김경원 교수이다. 최근 까지 약 7년간 《삼성리서치 글로벌인공지능센터 빅데이터팀과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에서 모바일 서비스 효과분석, 서비스 고객불만 경보시스템 구축, 온라인광고 가격 최적화 및 타겟 마케팅 매출 향상, 최적 마케팅 포트폴리오 예측, 헬스서비스 건강진단 성능 최적화, 부진재고 최소화를 위한 제조공정 자동화 등 약 14종의 데이터 분석을 기획하고 분석 결과를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한국 등 실제 비즈니스에 검증 까지 진행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활동하였다.

2021년부터는 《인천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하는 방법,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경영, 경제, 물류, 금융, 문화, 관광, 데이터 등 7개의 세부전공에 활용할 수 있는 융합 비즈니스 전략을 도출하는 방법을 강의하고 있다. 김경원 교수는 전공한 수학과 통계학, 그리고 산업공학에서 활용되는 정량적 분석 “기술”을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녹여내어, 실제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위험을 낮추고 공동체 내 신뢰를 높이고 화합과 연대를 이뤄낼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운영하는 Digital Economy & Business Analytics Lab 소속 차명주 및 임보민 학생 연구원들이 실제 뉴스 미디어의 빅데이터를 크롤링하여 수집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하였고 이후 결과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여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함께 연구에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는 두 전문가는 치매라는 노인성 질병과 치매가 가져오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연구하기에 최적인 연구진으로 구성되었다. 노인복지와 정신건강의료복지를 전공하고, 기업 사회공헌 및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도 오랜 시간 인사이트를 가져온 사회복지학 교수와 IT 기술을 접목시켜 다양한 사회문제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한 프로그램 개발자 의사가 함께 사회변화와의 간극을 좁히고 현존하는 빈틈들을 학술적 성과로 채워, 치매라는 다가올 초고령사회의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에 치매가 포용되고 공



감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의미있는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 1) 연구 책임자: 김경원 교수



### Kyungwon Kim (국립 인천대학교 김경원 교수)

[2021.03 - Present]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Korea](http://www.inu.ac.kr)

[2018.01 - 2021.02] Data Scientist, BigData Team, Global AI Center, [Samsung Research, Seoul, Korea](http://www.samsung.com)

- Business Consulting and Evaluation for Advertising, Digital Marketing, AI Factory, and Demand Forecasting

[2017.09 - 2017.12] Data Scientist, Data Analytics Lab, Software Center, [Samsung Electronics, Seoul, Korea](http://www.samsung.com)

[2014.04 - 2017.08] Data Scientist (with Military Service), BigData Lab, Division of Visual Display, [Samsung Electronics, Suwon, Korea](http://www.samsung.com)

- Data Analysis Design and Platform Operation for Service Optimization, Personal Recommendation, and Warning System

• Office: #14-422, 119 Academy-ro, Yeonsu-gu, Incheon, South Korea (22012)

• Tel: +82-32-835-8525

• Email: [thekimk.kr@gmail.com](mailto:thekimk.kr@gmail.com) [thekimk@inu.ac.kr](mailto:thekimk@inu.ac.kr)

### • 학력 및 이력

한양대학교 수학과 학사 (2002.03-2007.02)

서울대학교 계산과학과 석사 (2008.03-2010.02)

: 지능형데이터분석 연구실 (지도교수: 통계학과 김용대 교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박사 (2010.09-2014.02)

: 금융리스크공학 연구실 (지도교수: 산업공학과 장우진 교수)

삼성전자 빅데이터랩 데이터사이언티스트 (2014.04-2017.08)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센터 데이터분석랩 데이터사이언티스트 (2017.09-2017.12)

삼성리서치 글로벌 인공지능센터 데이터사이언티스트 (2018.01-2021.02)

現) 인천대학교 글로벌정경대학 조교수 (2021-)

### • 연구 프로젝트

[2024.05 - 2026.04] 복지재원 증대를 위해 사회적 자원을 활용한 XAI 기반 개인 기부 예측 및 유도 전략, 산학협력단, 인천대학교 (INU)

[2024.03 - 2024.08] 고속철도 단기 수송수요 예측모형 구축 및 검증, 철도연구원, 한국철도공사

[2024.01 - 2024.12] 기부 빅데이터와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기부자 예측 연구, 나눔문화연구소, 사랑의열매

- 
- [2023.08 - 2024.04] AI 기반 갈등관리 DB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3.05 - 2024.04] 사회보장 정책의 개선을 위한 XAI활용 텍스트 분석 기반 온라인 콘텐츠 제작 예측플랫폼 연구, 산학협력단, 인천대학교 (INU)
- [2023.02 - 2024.05] 치매 태도와 인식 변화를 위한 XAI 활용 미디어 텍스트 분석 및 콘텐츠 제작 플랫폼 개발, 융복합 연구공모단, SK T&C 재단법인
- [2022.05 - 2023.04]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에너지 데이터의 정보 효율성 분석, 산학협력단, 인천대학교 (INU)
- [2022.07 - 2022.11]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도시공원의 사회적가치와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간 연계효과 분석, 용산공원 연구공모 운영사무국, 서울특별시
- [2021.05 - 2022.04] 시계열 데이터의 변환점 추정 및 트렌드 예측, 산학협력단, 인천대학교 (INU)
- [2021.05 - 2022.04] 국가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디지털 데이터의 미래 예측 분석 솔루션, 산학협력단, 인천대학교 (INU)
- [2020.01 - 2020.10] 실시간 채널 별 광고효과 추론 및 최적 입찰(Bidding) 가격 예측, 인공지능센터, 삼성리서치 (Samsung Research)
- [2019.05 - 2020.02] 마케팅 프로모션 효과 증대를 위한 광고추천분석 및 매출 기여 효과검증, 인공지능센터, 삼성리서치 (Samsung Research)
- [2019.01 - 2019.12] 제품부품 부진재고 비용 최소화를 위한 공정 최적화, 인공지능센터, 삼성리서치 (Samsung Research)
- [2018.01 - 2019.06]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채널 매출기여도 분석 및 최적 투자 포트폴리오 추천, 인공지능센터, 삼성리서치 (Samsung Research)
- [2018.01 - 2018.09] 매출 최대화 및 비용 최소화를 위한 제품 판매 수요 중장기 예측, 인공지능센터, 삼성리서치 (Samsung Research)
- [2018.01 - 2018.09] 동남아 시장 약 4억명 고객 대상 프로모션 효과 예측 및 ROI 향상 전략, 인공지능센터, 삼성리서치 (Samsung Research)
- [2017.09 - 2018.06] 모바일 생산 자동화를 위한 베트남 공장의 데이터 기반 플랫폼 최적화, 소프트웨어센터,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 [2017.01 - 2017.12] 고객 불만 사전대응 및 감소를 위한 고객VOC 정보시스템 구축, 빅데이터랩,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 [2016.12 - 2017.04] 모바일 불량 원인 파악을 위한 생산라인 이상기기 탐지 및 수명 예측, 빅데이터랩,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 [2016.10 - 2016.12] 개인화 맞춤 프로모션을 위한 마케팅 전략, 빅데이터랩,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 [2016.01 - 2016.12] 제품 기능/앱 사용성 향상을 위한 고객 패턴 분석, 빅데이터랩,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

[2015.03 - 2015.12] 제품 기능/앱 사용 유사성 기반 고객 프로모션 전략, 소프트웨어그룹,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2014.10 - 2015.06] 광고효과 증대를 위한 소비자 나이/성별 예측 및 콘텐츠 추천, 소프트웨어그룹,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2014.05 - 2014.12] 기존 제품 사용성 개선을 위한 이탈 고객 실시간 탐지, 소프트웨어그룹,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 • 연구논문

[J12] Kyungwon Kim, Yoewon Yoon, Soomin Shin\*. “Explainable Prediction of Problematic Smartphone Use among South Korea’s Children and Adolescents using a Machine Learning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Informatics, 186, 105441 (SCIE, IF=4.900, JCR 2022 Q1) (2024.6.1.)

[J11] Soomin Shin, Kyungwon Kim\*. “Prediction of Suicidal Idea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using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Algorithm: A Case Study in South Korea where Suicide is the Leading Cause of Death”, Asian Journal of Psychiatry, 88, 103725 (SCIE, IF=13.890, JCR 2021 Top 4.19%) (2023.10.1.)

[J10] Poongjin Cho, Kyungwon Kim\*. “Global Collective Dynamics of Financial Market Efficiency Using Attention Entropy with Hierarchical Clustering”, Fractal and Fractional, 6(10), 562 (SCIE, IF=3.577 in 2021) (2022.10.3.)

[J9] Kyungwon Kim, Ji Hwan Park, Minhyuk Lee, Jae Wook Song\*. “Unsupervised Change Point Detection and Trend Prediction for Financial Time-Series using a New CUSUM-Based Approach”, IEEE Access, 10, 34690-34705 (SCIE, IF=3.367 in 2020) (2022.3.25)

[J8] Kyungwon Kim, Minhyuk Lee\*.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Unpredictable Dynamics of the Cryptocurrency Market”, Entropy, 23(9), 1234 (SCIE, IF=2.524 in 2020) (2021.9.20.)

[J7] Kyungwon Kim, Kwon Eun, Jaram Park\*. “Deep User Segment Interest Network Modeling for Click-through Rate Prediction of Online Advertising”, IEEE Access, 9, 9812-9821 (SCIE, IF=3.367 in 2020) (2021.1.8.)

[J6] Kyungwon Kim, Jae Wook Song\*. “Analyses on Volatility Clustering in Financial Time-series using Clustering Indices, Asymmetry, and the Power of the Scale Freeness in Visibility Graph”, IEEE Access, 8, 208779 - 208795 (SCIE, IF=3.367 in 2020) (2020.11.10.)

[J5] Kyungwon Kim, Jae Wook Song\*. “Detecting Possible Reduction of the Housing Bubble in Korea for Different Residential Types and Regions”, Sustainability, 12(3), 1220 (SSCI & SCIE, IF=3.251 in 2020) (2020.2.7.)

- [J4] Kyungwon Kim, Jae Wook Song\*. “Managing Bubbles in the Korean Real Estate Market: A Real Options Framework”, Sustainability, 10(8), 2875 (SSCI & SCIE, IF=2.592 in 2018) (2018.8.13.)
- [J3] Bonggyun Ko, Kyungwon Kim\*. “Simulation of Sovereign CDS Market based on Interaction between Market Participant”, Physica A: Statistical Mechanics and its Applications, 479, 324-340 (SCIE, IF=2.132 in 2017) (2017.8.1.)
- [J2] Kyungwon Kim, Seen S Jung\*. “Empirical Analysis of Structural Change in Credit Default Swap Volatility”, Chaos Solitons & Fractals, 60, 56-67 (SCIE, IF=1.448 in 2014) (2014.3.1.)
- [J1] Kyungwon Kim\*. “Modeling Financial Crisis Period: A Volatility Perspective of Credit Default Swap Market”, Physica A: Statistical Mechanics and its Applications, 392(20), 4977-4988 (SCIE, IF=1.722 in 2013) (2013.10.15.)

## 2) 공동 연구원: 신수민 교수



Google Scholar

CV



### Soomin Shin (신수민)

[2020.04 - Present]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Yuhan University, Bucheon, Korea

- Director of Student Counselling Center, Director of Disabled Student Assistant Center
- Courses in charge: Mental Health Social Work, Medical Social Welfare, CSR and Social Economy, Social Welfare Policy, Social Welfare Research, Public Health

[2018.08 - 2020.02] Research Associate & Consultant, Department of Citizenship and CSR Research,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amsung Global Research), Seoul, Korea

- Business Consulting and Evaluation for CSR, CSR strategic planning, ESG evaluation response, Employee social value train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NPOs partnerships Benchmarking, SDGs-linked Sustainability strategy suggestion, Employee happiness and mental health management program development, Employee volunteering management and performance measurement

[2013.04 - 2014.02] Researcher, Social Service Policy Lab, Korean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Korea

- Domestic and foreign social welfare policy review, Social service demand and supply survey, Social welfare service regional GIS analysis, Social service development strategy planning, Public servant in-depth and focus group interview for re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 Main Office: Yujaera-Bldg. #419, 590 GyeongIn-ro, Bucheon-si, Gyeonggi-do, South Korea (postal code 14780)
- Office: +82-2-2610-0940
- Email: [soominshin@gmail.com](mailto:soominshin@gmail.com), [soominshin@yuhan.ac.kr](mailto:soominshin@yuhan.ac.kr)

### • 학력 및 이력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사회복지학 문학사/이학사 (2006-2011)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노인복지학/비영리 (2011-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원 (2013-2014)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정신건강의료복지 (2014-2020)  
 삼성경제연구소 사회공헌연구실(CSR연구실) 선임연구원 (2018-2020)  
 現) 유한대학교 보건복지학과 조교수 (2020-)

#### • 수행한 대표 프로젝트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의 지역단위 분석 및 수요자 예측 연구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 발전 전략 개발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2014 국립정신건강병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2015 연세대학교 자살생존자 정신건강 연구  
 2016 연세대학교 자살예방정책 효과성 및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사업 평가  
 2016 연세대학교 융합연구의 학제간 관계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2017 연세대학교+SKT바른ICT연구소 스마트환경: 스마트폰이 인간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8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 성과측정 및 평가도구 개발  
 2018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사 사회공헌 전략 기획 및 실행계획 수립  
 2018 삼성경제연구소 임직원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성과 분석  
 2019 삼성경제연구소 사회변화 견인형 사회공헌 사업 발굴  
 2019 삼성경제연구소 정신건강 및 웰니스 관련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 및 신사업 발굴  
 2019 삼성경제연구소 삼성복지재단 신사업 발굴 및 글로벌 기업 재단 벤치마킹  
 2019 삼성경제연구소 임직원 정신건강 관리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기획  
 2020 유한대학교/유한양행 유한양행 건강의 벗 사회공헌 사업 효과성 평가  
 2020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업사회공헌 및 사회적경제 협업  
 2021 유한대학교/유한양행 유한양행 ESG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제약회사 벤치마킹  
 2021 유한양행/프리메드 유한양행 지역사회공헌사업 파트너십 검토: 민간의료비영리단체  
 2021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의 공공구매 역량 강화 연구  
 2022 서울시청, 용산공원 도시공원의 사회적가치와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간 연계효과 분석  
 2022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아동돌봄 사회서비스의 사회적협동조합 성장가능성 연구

- 
- 2023 티앤씨재단 노인차별(Ageism) 문제의식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한국 사회의 세대 간 갈등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 및 텍스트 마이닝 분석
  - 2024 한국연구재단 텍스트 마이닝과 데이터 마이닝 기반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 예측 모형 개발
  - 2024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빅데이터와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기부자 예측 연구

• 연구논문 및 Conference presentation

- 정원석, 신수민, 최은아, 김진수 (2024). A Case Study on Community Treatment Center for Response to COVID-19 in Korea: Focusing on Surge Capacity 4S Component Analysis and Social Well-being Perspective. Social Work in Public Health.
  - 유한나, 권소일, 신수민 (2022).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구매시장 역량강화 사례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와 기업연구, 15(2), 37-64.
  - 신수민 (2018).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직무교육 조절효과. 사회복지연구, 49(1), 109-132.
  - 신수민, 정규형 (2017). 노년기 주거비 부담이 우울 궤적에 미치는 영향: 노후 생활비 준비여부에 따른 차이비교. 노인복지연구, 72(4), 191-215.
  - 신수민, 김민정 (2017).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4(3), 159-175.
  - 신수민, 정규형 (2016).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성인매체 이용빈도 및 몰입도의 매개효과. 한국가족사회복지학, 52, 7-34.
  - 신수민, 송인한 (2016) Factors affecting job stress of sexual violence support workers in South Korea.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Conference, Denver, CO
  - 신수민, 송인한, 김지은, 이상혁 (2016). A Delphi Analysis for the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s for Specialists Who Provide Services for the Treatment and Recovery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South Korea.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Conference, Denver, CO
  - 신수민, 송인한 (2015). Effect of Adolescents'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on suicidal thought: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alcohol drinking.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conference, Chicago, IL
  - 신수민, 이한기, 전소담, 이혜원, 송인한 (2015).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Conference, Denver, CO
-

- 
- 신수민, 송인한, 김지은 (2015). Professional training needs of practitioners for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Conference, Denver, CO
- 

### 3) 공동 연구원: 허준녕 교수



안녕하세요, 허준녕입니다!

신경과 전문의이자 디자이너/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입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것을 목표로 야심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학과 IT가 만나는 중간지점에서, 생명을 살리는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 • 학력 및 이력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학사 (2005-2009)

연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석사 (2009-2013) 의사면허 취득 (2013)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2013-2018) 신경과 전문의 취득 (2018)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임상강사 (2021-2022)

現) 세브란스병원 신경과/영상의학과 임상연구조교수 (2022-)

#### • 수행한 대표 프로젝트

2007	Pinnote.com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창업
2008	OSXDEV.org	국내최대 Mac OS 개발자 커뮤니티 운영진
2009	Freemed.or.kr	비영리민간의료단체, 공동설립

---

---

2009	Ysmed.org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커뮤니티 및 웹하드 서비스
2010	YMCG App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학회 첫 모바일 앱 개발
2012	StudyMate App	시간관리앱, 아이폰 앱스토어 전체 판매 2위
2012	뇌졸중119앱	대한뇌졸중학회 공식 뇌졸중 환자 응급처치 앱 개발
2017	Smartstroke.net	다기관 뇌졸중 연구 데이터 레지스트리 운영
2018	Optidic.net	머신러닝 기반 혈액학적 질병 (DIC) 진단 서비스
2019	Aria	뇌혈관 혈전 병리 분석 자동화 프로그램
2020	DOCL Checkup	AI기반 COVID-19 중증도 분류 앱
2021	VNSchoolHealth	베트남 청소년 국가 건강검진 모바일 앱 제작
2021	S2CAD	머신러닝기반 뇌졸중 환자 심혈관질환 예측 서비스
2021	REDEA	의료 데이터 관리 플랫폼
2021	DevDoctors	<개발하는 의사 커뮤니티> 설립 및 운영중

- COVID-19 Project, Doctors on the Cloud (<https://docl.org>) 관련 업적 및 성과
    - WHO Digital Health Atlas 세계 3번째 등재 프로젝트
    - Google AI for Social Good Grant 수여 (국내 유일)
    - KOICA CTS 파트너사 선정
    - 인도네시아 현지 병원과 MOU 체결 후 AI기반 COVID-19 중증도 분류 앱 제  
공 중
    - 현재 전국에 사용중인 QR체크인 프로토타입 개발 (보건복지부 제공)
-



## 제3절 연구 일정 및 빅데이터 수집

### 1. 연구일정

2023년 4월 연구공모 최종선정 발표 이후, 연구진과 티앤씨재단은 약 1년동안 2024년의 전시를 함께 고민하였다. 연구진의 전문성과 티앤씨재단의 경험이 갖춰져 있었음에도 2024년의 전시는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바닥부터 다지는 역할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대중들이 느끼길 기대하는 "전시의 방향 또는 가치"는 어느 정도 명확하였음에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디딤돌들을 만들어 가야 할 지는 모두에게 너무 넓게 열려있었기 때문이었다. 돌이켜보면 너무 넓은 후보들에서 가장 그럴듯한 것을 선정하는 되는 다소 쉬운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오히려 끊임없는 문제를 파헤치고 깊이 들여다보며 연구와 조사를 계속하기 바빴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무언가 선명한 후보들이 올라왔다고보다 연구진이 얼마나 많이 모르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깨닫는 과정이 더욱 많아졌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름대로 연구진의 전문성을 결합해 보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러한 과정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23년 4월 연구과제 착수 계약 후 세부 연구 방향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연구진과 재단의 전문성을 다 내려 놓은 채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는데 약 5개월의 시간을 들여 집중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치매 인식의 글로벌 선행연구를 다양하게 조사하게 되었고 실제 온라인의 뉴스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빅데이터에 내포 되어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어 텍스트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을 미리 개발하고 텍스트의 감성을 파악하기 위한 엔진도 개발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외에도 실제 대상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심의와 필요한 절차들을 밟아가며 빠르게 아이디어들을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였다. 이후 8월부터는 약 3개월 동안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기반 양적연구와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들의 인터뷰 기반 질적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11월부터는 분석된 결과들에서 전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라 판단되는 트렌드와 대중들의 감성,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가슴 깊이 자리잡고 있던 마음들을 꺼내보는 인터뷰 결과들을 요약하였다.

〈표 1-2〉 연구공모 진행 세부 추진 프로세스

세부내용	추진 프로세스										
	세부연구 아이디어 제안				아이디어 검증 및 결과정리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회적 공감 확산 연구과제 착수 (Kick-off)	○										
• 세부연구방향을 위한 검토 (Pivoting)	○	○	○	○	○						
• 치매 관련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실태조사와 선행연구 리뷰	○	○									
• 국내외 치매 인식개선 관련 정책 및 교육자료 현황 조사	○	○	○								
• 인터뷰 기반 질적연구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 심의			○	○	○						
• 온라인상 뉴스 미디어 빅데이터 샘플 크롤링	○	○	○								
• 온라인상 뉴스 미디어 빅데이터 전체 크롤링		○	○	○	○	○	○				
• 비정형 한국어 텍스트 샘플데이터의 전처리			○	○							
• 텍스트의 긍부정 추론엔진 개발을 위한 샘플 학습 및 성능 검증				○	○						
• 뉴스 기사의 키워드 추출, 트랜즈 분석, 긍부정 감성분석					○	○	○				
• 키워드 기반 주제 추출 및 요약, 텍스트 분석, 긍부정 감성분석					○	○	○				
• 인터뷰 가능한 청장년층/노년층/전문가 인터뷰이 섭외					○	○					
• 인터뷰 실시 및 녹취 내용 비정형데이터 전처리						○	○	○			
• 세대 간 의견 텍스트 분석 및 질적연구의 인사이트 도출									○		
• 티앤씨재단을 통한 APoV 전시회 및 컨퍼런스 등 적용 검토									○	○	

## 2. 빅데이터 수집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데이터는 2013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0년간의 온라인의 구글 및 네이버에서 발행된 뉴스 기사들을 모두 Python Crawling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방송사 5종, 전국일간지 11종, 경제일간지 8종, 그리고 전문지 2종으로 총 26개 언론사에서 발행한 뉴스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수집된 뉴스는 경제, 사회, 문화, 국제 4개의 분야에서 총 44개의 세부분야 카테고리가 포함되었다.

〈표 1-3〉 수집된 빅데이터의 언론사와 카테고리 종류와 검색 키워드

언론사											
방송사	KBS	MBC	OBS	SBS	YTN						
전국일간지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제일간지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전문지	디지털타임즈	전자신문									

대분류	소분류														
경제	유통	자원	자동차	무역	증권·중시	서비스·쇼핑	산업·기업	부동산	국제경제	경제일반	금융·재테크	외환	반도체	취업·창업	
사회	사건·사고	장애인	의료·건강	사회일반	환경	여성	교육·시험	노동·복지	미디어	날씨					
문화	전시·공연	학술·문화재	미술·건축	생활	문화일반	음악	요리·여행	출판	방송·연예	종교	영화				
국제	일본	유럽·EU	국제일반	러시아	중국	미국·북미	중남미	아시아	중동·아프리카						

순번	키워드분야	실제검색어	순번	키워드분야	실제검색어
1	고령화	고령화	21	복지시설	복지시설
2	노인부양	노인+부양	22	질병	노인+질병
3	세대갈등	세대+갈등	23	은퇴연령	은퇴+연령
4	의료	노인+의료	24	노인대상범죄	노인대상+범죄
5	경제적자립	노인+경제적+자립	25	복지시설	노인+복지
6	노인빈곤	노인+빈곤	26	노후	노후
7	사회보장제도	노인+사회보장	27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8	우울증	노인+우울증	28	혈오	노인+혈오
9	망각	망각	29	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
10	독거노인	독거노인	30	봉사	노인+봉사
11	노화	노화	31	부모님	노인+부모님
12	사회	사회	32	100세시대	100세
13	고령사회	고령사회	33	파킨슨	파킨슨
14	주택문제	노인+주택+문제	34	연금	노인+연금
15	노년재취업	재취업	35	거주환경	거주환경
16	가족	세대+가족	36	노인문화지원	문화지원
17	가족	노인+가족	37	실버산업	실버산업
18	안락사	안락사	38	치매	치매
19	사고	노인+사고	39	연령통합사회	연령+통합
20	건강	노인+건강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관점에서의 Ageism 감성을 파악하고 대인적 또는 세대 간 관점에서 온라인 뉴스를 많이 시청하는 주된 청장년층이 미디어를 통해 받아들이게 될 노인이 어떠한지 트렌드와 주요 키워드와 인사이트를 파악하기 위함이 세부가설들의 배경이었다. 따라서 세부가설들의 좀더 부합하는 약 40개에 가까운 주요 키워드 그리고 관련 키워드들을 결합하여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는 기존 연구들에서도 활용하지 못했던 많은 키워드를 사용한 방대한 양의 일반화된 Ageism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1개의 키워드를 1달에 약 4천건의 뉴스가 발행되고 있고 10년으로 확장하면 약 50만건이 된다. 따라서 전체 키워드로 확장하면 약 1600만건의 뉴스 빅데이터가 수집된 것이다.



## 제2장

# 치매(Dementia)와 인지저하증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 국내의 치매관리 동향

제3절 해외의 치매 정책 및 대응

제4절 치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제5절 나가며



# 2

## 치매(Dementia)와 인지저하증 ≪

### 제1절 들어가며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의료 및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인류 평균수명도 연장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에서 노인층의 인구비율 상승세 역시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해외 그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2025년에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다양한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주목을 받고있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치매(dementia)이다. 노인성 질병으로 보고되는 치매의 경우, 고령화 추세에 발맞추어 함께 유병률이 증가되고 있으며 2020년 우리나라의 추정 치매 환자수는 83만 3천여명, 치매 유병률은 10.25%에 이른다. 아래 [그림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2025년에는 107만 8천여명으로, 2040년에는 217만 3천여명, 2050년에는 302만 3천여명으로 치매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1~'24 치매관리종합계획자료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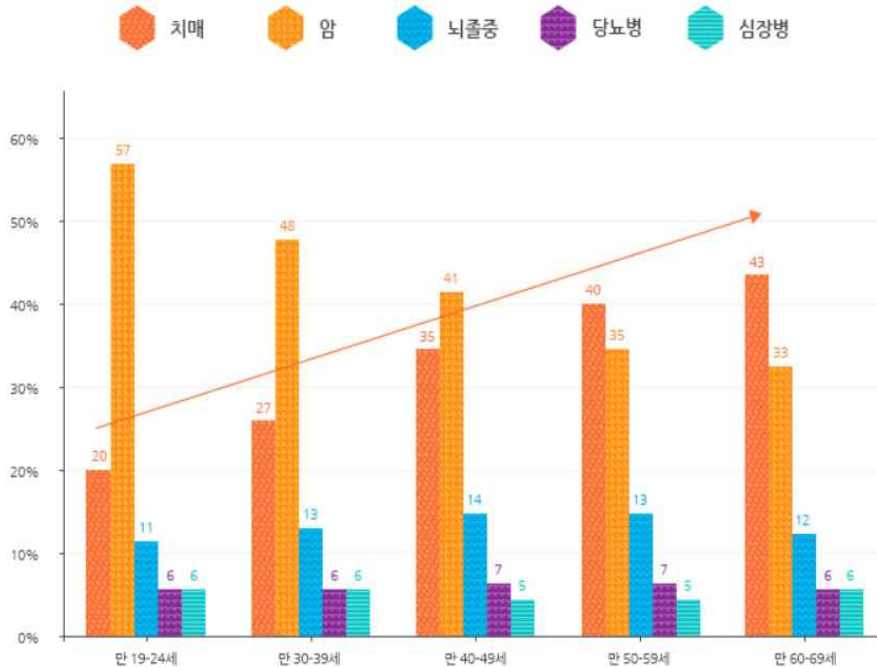
[그림 2-1] 2020년~2050년 국내 치매환자 수 및 치매 유병률

고령사회에서 치매는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발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의 가능성이 증가되는 만성 퇴행성 질병이다. 병이 진행됨에 따라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의 능력이 저하되고(문정희, 2014), 인격이 황폐화되어 환자 스스로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안기며 더불어 국가에게도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20년 9월기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치매로 인한 2019년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2조 3,821억원으로 2015년대비 1.6배 증가하였다. 또한 2019년 치매로 인한 장기요양비용은 4조 2,513억원으로 2015년 대비 1.54배 증가하였으며, 1인당 연간 장기요양비는 약 1천4백만원으로 보고되었다. 정부는 2050년에는 치매환자의 관리비용으로 103조 1천억원을 예상하며 GDP의 약 3.5%까지 증가할것으로 추정하였다(보건복지부, '21~'24 치매관리종합계획).

치매로 인한 부담감은 정부가 짊어질 사회경제적인 비용 뿐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가족, 개인에게도 어려움을 끼친다. 노인 가구 중 독거 노인이 증가하고, 가족의 부양 의식 약화로 가족 내 돌봄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고령자통계(2019)에 따르면, 부모에 대한 부양을 가족이 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02년 70.7%였던 것에 반해, '10년 36.0%로 감소하였고 최근 '18년에는 29.7%까지 하락하였다. 최근 치매 환자의 부양자가 돌봄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에 환자를 살해하고 스스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식약일보, 2022.10.3. 기사발췌). 가정 내에서 치매 환자를 무리하게 감당하다가 가족 갈등이나 가족 해체 등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치료 및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특히 가족 갈등의 심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19년 문체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들의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 49.0%, 정서적 부담 16.5%, 육체적 부담 14.5%의 순으로 환자 돌봄에 대한 부담감을 보고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림 2-2]와 같이 2014년 실시된 전국민 치매인식도 조사에서는 장노년층이 치매(43%)를 암보다도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꼽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매에 대한 공포와 높아지는 반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중앙치매센터, 2017).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매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치매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아 외, 2006).



[그림 2-2] 각 질병에 대한 두려움 (만 60-69세: 치매에 대한 두려움 최고치)

태도는 하고자 하는 행동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식과 더불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치매 환자를 돌봄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치매에 관한 태도와 인식에 따라 돌봄의 방법 및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장윤정, 2014). 미국 알츠하이머협회에서는 치매에 대한 인식과 이해 부족이 증상이 존재할 때 진료를 받지 않는 것, 조기검진을 받지 않는 것, 가능한 치료 자원을 활용하려 하지 않는 것, 치매 지원체계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안내한다. 실제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치매의 원인, 증상 등 질병의 특성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을 때 치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나타난다고 보고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2007년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로 선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통해 치매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시키고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정부에서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들을 지원하는 환경을 체계화 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기도 하였



다. 따라서 치매와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치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 확산으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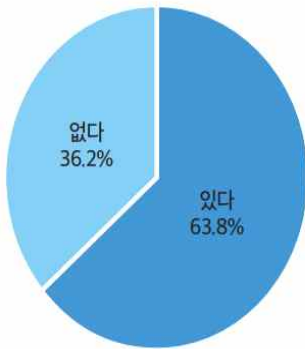
향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는 환자 및 가족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엄청난 변화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과거 치매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없는 노화의 한 현상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치매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치매의 조기발견이나 진단, 대응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에 있다고 나타났다.

2018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치매인식도 조사 보고서에서 치매와 관련된 정보를 접촉하는 경로로 '방송'을 꼽은 비율이 51.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터넷이 35.4%로 뒤를 이었다. 나이가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초로기 치매와 관련해서는 [그림 2-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에 대해 접촉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73.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나마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26.1% 가운데 방송을 통한 정보 구득이 61.3%로 가장 많았다.

아무리 치매에 대한 정보 전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교육자료를 만든다 하더라도 방송의 전파력 만큼 파급효과가 큰 매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초로기 치매에 대해서도 아예 정보를 접한 적 없는 경우가 이렇게 비중이 크다는 점은 치매와 관련하여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전달체계를 확보한 노력 대비 성과가 미진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 치매라는 질병에 우리사회가 더욱 단단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치매라는 질환에 대해, 나아가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에 대해 지역사회 내 기관이나 사회서비스(장기요양보험 및 조기 검진 등)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방송이나 영화 및 광고 등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치매라는 주제를 얼마나 정확하고 또 자극적이지 않게 비추는가에 따라 대중의 태도나 인식 역시 긍정적으로 심어질 수 있을 것이다. 치매와 관련된 의료적 정보 외에도 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고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대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때, 치매예방과 치매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대처 역시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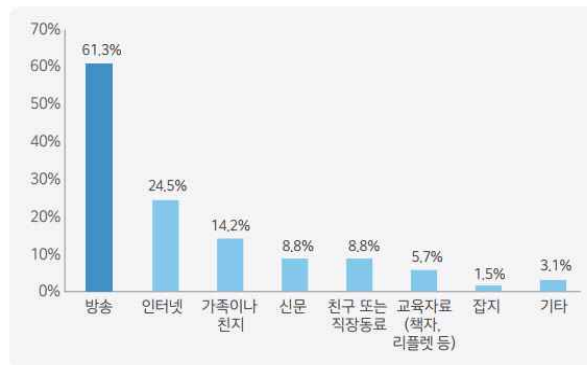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로>



<초로기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험>



<초로기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로>



[그림 2-3] 치매 및 초로기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험 및 정보의 접촉 경로  
주: 2018 서울시민대상 치매인식도 조사 보고서 재인용

## 제2절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 국내의 치매 관리 동향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치매라는 질환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인 시민이나 대중에게 치매 혹은 치매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연상케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최근 중앙치매센터에서 발간한 ‘2021 치매 인식도 평가도구 마련 및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치매 질환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당히 높지만 치매 환자에 대한 수용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치매라는 질병에 대해 예방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준다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워 비중있게 홍보하였다. 2019년까지 중앙과 광역 및 지자체별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완료했을 뿐 아니라, 치매 안심병원을 지정하여 조기검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의료 및 돌봄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에 대한 정보나 지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치매를 나의 일로 혹은 나의 주변의 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나는 치매환자가 두렵다’는 질의에 ‘그렇다’고 수긍한 답변은 67.7%나 되었고, ‘치매환자의 가족은 절망스러울 것이다’는 응답에도 ‘그렇다’고 보고한 비율은 77.9%에 이르렀다.

2018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만 수행했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2021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중앙치매센터의 조사 결과에서도 역시 치매에 대한 정보 취득의 경로는 TV 방송이 36.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터넷이 32.8%로 나타났다(중앙치매센터, 2021). 가장 대중에게 손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또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매체가 TV와 인터넷이라고 보고 되었다.

국내에서 치매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 활용되어 온 설문 방법은 크게 치매에 대한 태도를 묻는 측정 도구(치매 태도)와 치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측정 도구(치매 인식)로 양분화되어 왔다.

태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대상(질병)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려는 학습된 성향을 의미한다(Erwin, P. P., 2001).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의 환경을 해석하게 해주고 특정 대상이나 사람과 교류하는 사회적 상황을 해석하고 행동하게 하는 지침이 된다. Breckler(1984)에 따르면 태도는 사람이나 대상을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인지적 측면,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 정서적 측면, 다가가거나 회피하는 등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성인 행동적 측면으로 구성 된다. 치매 태도 역시 치매라는 질병과 치매 환자에 대해 이해하고 판단하는 인지적인 측면과 치매 질병 혹은 환자를 도와주기 위해 접근하거나 혹은 기피하는 경향성을 반영하는 행동적 측면, 질병이나 환자로 인해 유발되어 느끼는 감정의 정서적 측면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치매 인식이란 치매와 치매 환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를 의미한다. 단지 질병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우리 사회에는 어떤 지원체계가 있는지 아는 것까지 포함한다. 치매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저조할 경우 치매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아 조기 진단이나 예방적 활동, 치료 등 건강 추구 행동을 하지 않고, 증상이 존재하더라도 방치하거나 조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위험도가 높다. 치매의 경우,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질병의 경과를 1-2년 정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치매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노인복지기관이나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치매 노인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치매 환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떻게 공감하는 태도를 갖는지 살펴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김은주, 2006; 최희경, 2007; 서혜경, 최현주, 2010; 손세정, 2019). 아예 치매 환자의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이나 보호자들의 태도나 인식을 파악하거나(용미현, 김은정, 양영애, 2010; 박건우, 김지연, 최문기, 정재범, 2012; 조상윤, 오봉옥, 2014), 특수교육이나 작업치료학, 간호학 등을 전공하는 대학생에게 치매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는 등(남혜리, 2019; 최희정, 권영채, 2020; 정보경, 성윤정, 2020; 최희정, 김지숙, 김정은, 2021) 설문을 기반으로 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해외의 경우, O'Connor & McFadden(2010)의 연구에서 Dementia Attitudes Scale(DAS)이 개발되었는데 이는 미국 노인 분야 심리학자들이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부양자의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해당 척도는 간호사나 요양시설 직원, 돌봄 부양자 등 직접 치매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조사 도구인데, 논문의 피인용 횟수가 2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해외에서도 국내연구의 현황과 마찬가지로 의료인이나 돌봄기관 종사자, 보호자 등 관련 직종 및 유경험

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이는 독일이나 중국, 홍콩, 아일랜드 등 다수의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Brodaty, Draper, & Low, 2003; Turner et al., 2004; Chodosh et al., 2006; Boustani, et al., 2008; Boustani, et al., 2011; Di Napoli, Breland, & Allen, 2013; Lam, et al., 2019; Keogh et al., 2020; Scerri, Innes, & Scerri, 2020; Wang, Xiao, & Huang, 2020; Zhao, Jones, Wu, & Moyle, 2022). 해외에서도 대학생이나 청소년, 혹은 중고령자와 같이 일반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공감도를 살펴본 연구들도 일부 발견할 수 있었다(Ahmad Basri et al., 2017; Farina, Hughes, Griffiths, & Parveen, 2020).

치매에 대한 태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그간 ‘치매(癡呆)’라는 병명이 가진 부정적 의미로 인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어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기 때문이다. 2021년에 수행된 조사는 2014년 이후, 7년 만에 실시한 치매 용어 관련 인식조사로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용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고, 명칭 변경에 대한 호응도를 파악하여 향후 치매 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고 한다. 만 19세 이상을 일반국민과 치매 환자의 가족 219명을 의도적으로 추가 표집하여 전화 면접조사를 수행한 결과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매’라는 용어에 대해 국민 43.8%가 거부감이 든다고 응답하였으며, ‘치매’라는 용어에 대해 거부감이 드는 이유로 국민 10명 중 6명은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60.2%)’ 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로는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17.9%)’ ‘환자를 비하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7.6%)’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고 나타났다. 반면 ‘치매’라는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든지 바꾸든지 무방하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고, ‘유지 해야 한다’ 27.7%, ‘변경해야 한다’ 21.5% 순으로 나타났다.

‘치매’ 용어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로는 ‘용어가 이미 부정적 편견이 생겼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58.6%로 가장 높았으며, ‘치매 환자를 비하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16.5%)’ ‘용어의 어감이 좋지 않아서(13.4%)’ 등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치매’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용어가 대중에게 이미 알려져 있기 때

문에'라는 응답이 28.5%로 가장 높았으며, '용어를 바꾸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22.2%), '현재 사용하는 용어가 익숙하기 때문에(21.6%)' 등이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치매'라는 용어를 변경한다면 가장 적절한 대체용어로는 '인지저하증'이 31.3%로 가장 높았으며, '기억장애증(21.0%)' '인지장애증(14.2%)' 등의 순으로 보고 되었으며, 대체 용어 중 '인지저하증'은 용어 변경에 따라 치매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가 예상된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현재 4차까지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치매 극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2008년 9월 치매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치매종합관리대책(08~12)」수립·발표하고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치매검진, 치매진료·약제비 등 지원,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2012년 2월 「치매관리법」제정·시행 및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12~15)」수립·시행에 따라 중앙치매센터 운영,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치매상담콜센터 운영이 본격 추진되었다. 2015년 12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수립·확정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관리, 치매 진단·치료·돌봄, 치매환자 가족 부담 경감에 대한 내용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2020년 10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1~25)」을 발표하여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한도 확대,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21년 치매환자 연간 총 관리비용(추정)은 약 18조 7천억 원으로 GDP의 약 0.91%를 차지하였다. 국가치매관리비용이 2040년에는 약 56조 9천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치매환자 1인당 치매관리비용은 약 2,112만원으로 산출되었으며 해당 비용에는 직접의료비, 직접비의료비, 장기요양비용, 간접비(환자 생산성손실비용)가 포함되었다. 직접의료비는 치매 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와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약제비로 구성되며, 직접비의료비는 간병비, 교통비, 보조물품 구입비(소모품 구입비, 장비 구입비, 시설개선비)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 비용을 포함하고, 장기요양비용은 노인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및 재가급여)이며, 마지막으로 간접비는 조기 퇴직 등 치매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비용을 의미한다. 전체 비용 중 직접의료비(의료비, 본인부담약제비)의 비율이 53.36%로 가장 높고, 직접비의료비(32.70%), 장기요양비용(12.96%), 간접비(0.98%) 순이며 연간 치매관리비용도 증증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 제3절 해외의 치매 정책 및 대응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 인구가 급증하면서 치매는 국제 보건정책의 우선순위로 상향되고, 세계보건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들은 치매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방안을 모색 하고 있다. OECD는 2014년 치매 극복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접근 체계인 10대 치매관리핵심정책(10 key objectives)을 제시하였고, WHO는 모든 국가에게 국가치매관리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WHO는 2016년 국제 치매대응계획(WHO Global Action plan on the Public Health Response to Dementia(2017-2025))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2017년 6월 대한민국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국가적 과제로써 치매 정책을 본격 시행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 1. WHO 국제치매공동대응계획

WHO의 국제치매공동대응계획(GAPD: Global Action Plan on the public health response to Dementia)은 2013 제1차 G8(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캐나다, 일본) Dementia Summit 런던에서 개최:보건정책 수장들이 모여 국제협력강화 위한 공동추진과제 발표한 것에서 시작하여, 공동추진과제는 치매로 인한 부담 현황분석, 치매 예방, 치료 증진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그러다 2014 G7 Dementia Legacy Event 일본 도쿄: 치매극복을 위한 10대 핵심정책 제시하였다. WHO의 GAPD는 치매환자와 돌봄제공자가dignity, respect, autonomy and equality를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며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국제사회라는 비전 하에, 치매환자, 돌봄제공자의삶 개선 동시에 치매가 지역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 감소를 목표로 각국 정부가 치매에 대한 계획이나 정책을 이행하며 정부를 통한 자금지원과 확대, 모니터링을 실현해야 한다는 7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WHO의 국제치매공동대응계획 7가지 원칙은 1) 치매환자의 인권으로 정책, 계획, 입법, 프로그램, 중재 및 실행계획은 치매환자의 필요, 기대 및 인권에 민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 치매환자와 돌봄제공자의 역량 및 참여로, 치매환자, 돌봄제공자 및

이들을 대표하는 조직에 권한을 부여하고, 옹호, 정책, 계획, 입법,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치매 연구에 참여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3) 치매위험 감소 및 돌봄을 위한 증거 기반의 중재로서, 과학적 증거 및 모범 사례를 토대로 사람중심, 비용효과 및 지속 가능한 치매 위험 감소 및 관리를 위한 전략 및 중재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4) 치매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 다각적 협의로, 치매에 대한 대응에는 예방, 위험감소, 진단, 치료 및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5) 치매를 위한 보편적 건강보험 및 사회복지로, 보편적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설계 및 실행하는 것은 재정적 보호를 포함하며, 광범위한 진료, 예방, 진단 및 돌봄 서비스에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6) 형평성은 치매에 대한 보건 대응을 실시하려는 노력이 성평등 지원 및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고 취약계층을 고려할 것을 권한다. 7) 마지막으로 적절한 치매예방, 치료, 및 돌봄에 대해서는 치매 환자와 돌봄 제공자를 위한 예방, 위험감소, 돌봄 및 지원을 개선하고 질병 조절이나 치료, 위험 중재, 혁신적 모델을 찾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WHO는 2021년 mDementia 핸드북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흡연, 당뇨병, 노화, 심혈관질환 및 만성 호흡기 질환과 같은 질병 및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바일 기술인 mhealth를 기반으로 하며, WHO 및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이 협력하여 WHO의 지침, 기존 연구의 증거, 기존 WHO 전자 건강 콘텐츠 및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치매 예방 영역과 지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치매 예방 모듈의 경우 체중·심혈관질환 관리, 절주·금연, 신체적·인지적 활동 증가, 더 건강한 식단을 위한 내용이 담겨있고 치매 지원 모듈의 경우 치매환자 간병인의 정신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 치매 관리 문해력 증가, 치매환자들의 일상적 치료 및 치매의 진행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국내의 중앙치매센터에서 제작하여 활용되고 있는 치매가이드북이나 치매체크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부터 조성된 Global Dementia Observatory(이하, GDO)는 WHO 회원국의 치매 관련 데이터와 지식을 교환하고 치매 관련 각종 통계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개발되었다. 35개의 주요 치매 지표에 대한 WHO 회원국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치매환자, 간병인 및 가족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강화하고



자 만들어진 GDO는 2021년부터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졌다.

2021년 5월 WHO는 글로벌 치매 행동 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고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치매에 대한 각국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GDOKE 플랫폼을 출범시켰으며 이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이는 35개 치매 주요 지표에 대한 회원국 데이터를 수집·보급하여 보건 및 사회보장 시스템 뿐 아니라 근거 기반 서비스 기획과 정책 강화를 지원하는 GDO 데이터 포털을 보완한다. 동료 검토자 패널, 치매 경험자 포커스 그룹 및 WHO 사무국으로 구성된 포괄적 검토 프로세스는 자원이 품질 및 모범 사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며, 동료평가 네트워크는 학계, 임상, 정책입안자, 보호자 등 WHO 34개국 79명의 치매 전문가로 구성, 동료 검토자는 글로벌 치매 조치 계획의 7가지 영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공유한다. GDOKE 포커스 그룹을 통해 치매 경험자 8명을 적극 검토 과정에 참여시켜 공유된 자원이 시행될 경우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포커스 그룹 멤버는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출신이다. 자원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동료 검토자와 포커스 그룹이 제공하는 피드백을 플랫폼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사용자들도 의견을 남기고 평가할 수 있다.

##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현재 36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이하, OECD)는 전 인류의 번영, 평등 그리고 안녕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의 협력과 교류, 국지적 측면의 사회 경제적 이슈에서 2004년을 기점으로 노인인구의 사회, 경제적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 분야로 활동의 범위를 보다 심화 확대해왔다.

처음으로 치매정책의 필요성 제기와 함께 회원국 중 호주,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스페인, 스웨덴, 영국의 치매관리현황을 비교 분석한 「Dementia Care in 9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2004)」 정책연구보고서는 치매정책을 수립할 다른 국가들의 이해를 돕고 OECD회원국의 보건정책 입안과 수립에 기여하였다. “Health at a Glance; 2021 보고서”를 통해 OECD 국가의 치매 관련 현황을 밝히면서 OECD 국가의 2,100만 명 이상이 2021년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까지는 2배가 되어 OECD 국가의 4,400만 명이 도달할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치매환자들은 COVID-19 팬데믹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COVID-19에 대한 조치(엄격한 금지·시설 방문자에 대한 제한)는 사회적 고립을 극적으로 증가시켜 이의 장기적인 지속은 치매환자들의 인지적 감소와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 3. 유럽연합(EU)

유럽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은 Alzheimer Europe(이하, AE)와 공동으로 2007년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을 통해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치매를 주요 보건 아젠다로 상정하였고 이후 회원국 간의 치매연구 지원, 정책 연구 및 정책 수립, 공동성명서 제출, 재정적 지원 등, 치매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2015년 12월에 시작된 COSTREAM 프로젝트는 66개월동안 뇌졸중과 알츠하이머병의 연관성을 조사하여 2021년 5월 31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총 7개국의 King's College, University of Cambridge, Institute Pasteur de Lille, University of Bordeaux, Erasmus University Medical Center, MIMETAS, Leiden University, University of Geneva, Ludwig-Maximilians-University Munich, European Institute for Biomedical Imaging Research, Karolinska Institute 11개 파트너가 연구팀을 결합하여 뇌졸중과 알츠하이머병의 동시 발생 경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켰다.

### 4. 국제 알츠하이머 협회(ADI)

ADI는 1984년 설립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약 90여 개의 다양한 치매 관련 비영리 단체가 참여하는 기구이며 WHO와의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환자의 권익 옹호를 위해 'World Alzheimer's Month'와 같은 캠페인을 추진시켰으며, 매년 9월 21일을 '세계 치매 극복의 날(World Alzheimer's Day)'로 지정하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ADI는 치매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영역에 대해 정책적, 학술적인 내용부터 환자와 가족,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까지 매우 다양한 간행물들을 발간하고 있으며 WHO와의 공식 파트너로서 이러한 간행물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지역별 치매관련 정책 수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간 정기 간행물인 World Alzheimer Report는 해마다 특색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그와 관련된 세계적인 동향과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World Alzheimer Report 2020에서는 「Design, Dignity, Dementia: Dementia-related design and the built environment」를 주제로 발간되었다. 이는 치매 환자들이 지내기에 편안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 어떤 것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해야 하는지, 건축은 어떠한 형태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 Alzheimer Report 2021에서는 「Journey through the diagnosis of dementia」를 주제로 발간되었다. 이는 치매환자, 간병인, 임상의 연구원, 알츠하이머 및 치매 협회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인식도 조사를 진행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ADI에서는 「From plan to impact」를 발간하는데, 2020년, 2021년, 2022년에 각각 III, IV, V편이 발간되었다. III편은 COVID-19 팬데믹과 관련하여 국제 치매 공동 대응 계획 (2017-2025)에 대한 WHO의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IV편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장벽, 필수 국가 치매 계획을 개발하고 배치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옹호하는 방법을 살피고 있다. V편은 WHO 회원국과 일부 비회원국에서 국가 치매 계획의 창출 및 이행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7가지 실행 영역과 관련된 전문가분석 및 연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회원국에서 설정된 목표보다 낮은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을 전달하였다.

## 5. 알츠하이머 연맹(AA)

알츠하이머 연맹(Alzheimer's Association, 이하 AA)은 1980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미국 내 치매관련 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의 기관이다. '치매 없는 세상(A world without Alzheimer's disease)'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알츠하이머 연구와 지원, 케어, 치매 예방 등 미국 내의 치매관련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따라서 AA는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의 연료가 되는 기금마련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Walk to End Alzheimer's, Peer-to-Peer, The Longest Day와 같은 기금마련 이벤트를 통해 기

금을 확보하는 등 전략적인 기금마련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왔다. AA와 AA의 advocacy arm으로 표현되는 Alzheimer's Impact Movement(이하, AIM)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은 연구기금의 대규모 증액과 치매환자와 가족의 돌봄 지원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NAPA(National Alzheimer Project Act)가 통과된 이후 알츠하이머 및 치매 연구 자금이 7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2022년 3월에 2억 9,900만 달러의 증가에 따라 현재 NIH 지출에 추가된 Alzheimer의 연구를 위한 연간 연방 기금은 35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알츠하이머가 없는 세계로의 비전을 추구하기 위해 2021년에 최대 규모의 연구 투자를 했으며, 7,000만 달러 이상에서 253건 이상의 과학적 조사를 허용한 바 있다.

AA가 발표하는 연간보고서인 Alzheimer's Disease Facts and Figures는 미국 내 치매환자 현황과 치매 비용 부담(직접 의료비·간접 의료비) 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AA는 국제회의(Alzheimer's Associ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AAIC) 개최를 통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연구개발의 촉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1년 7월에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개최되었으며,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었다. 알츠하이머의 이미징 컨소시엄, 기본 과학과 병인, 바이오마커, 임상적 증상, 치매 치료에 대한 설명, 치매 치료 및 심리사회적 요인, 약물 개발, 공중보건, 기술 및 치매 사전회의에 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되었다. 2022년에도 샌디에고와 온라인을 통해 병행 개최되었다. AAIC 2022에서는 임신성 고혈압을 경험한 여성은 혈관성 치매 발병 위험이 1.64배 높다는 연구 결과, COVID-19 감염 후 나타나는 지속적인 후각 상실이 인지 저하의 강력한 예측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결과,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데이터 조사 결과 경제적 빈곤이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 중환자실에 입원한 노인의 치매 발생 위험이 2배 정도 높을 수 있다는 결과, 유산소 운동 및 스트레칭 등 규칙적 운동이 경도인지장애 증상 지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소개되었다.

## 6. 알츠하이머 유럽연맹 (AE)

알츠하이머 유럽 연맹(Alzheimer's Europe, 이하 AE)은 비영리단체(NGO)로서 유럽지역의 35개 국가와 40개의 치매 관련 단체들이 가입되어 치매 연구 및 정책 수립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07년 파리선언을 통해 치매에 대해 개선된 보

건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치매를 유럽보건의 우선 아젠다로 상정한 이후, 2011년에는 European initiative on Alzheimer's disease and other dementias 결의안 상정을 비롯하여 2018년 치매환자 돌봄자를 위한 법안 상정 등 EU와 함께 유럽 내 치매환자와 돌봄자를 위한 관련 법안 마련을 통한 다양한 정책 수립 및 연구를 우선 순위에 두어 일조하였다.

European Dementia Monitor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문서로, 유럽 전역의 치매환자, 치매환자 가족 및 간병인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다루고 크게 케어 측면, 의료 및 연구 측면, 정책 문제, 인권과 법적 측면으로 구분되어있다. 케어 측면의 경우 케어 가용성, 케어 서비스의 자금 조달에 대한 내용, 의료 및 연구 측면의 경우 치료, 임상시험, 유럽의 치매 연구 참여에 대한 내용, 정책 문제의 경우 치매의 우선순위 인식, 포용적이고 치매친화적인 이니셔티브에 대한 내용, 인권과 법적 측면의 경우 법적인 문제, 국제 및 유럽의 조약, 간병인 및 고용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1991년부터 시작되어 AE가 주최하며 유럽 20개 국가가 참여하는 AE의 컨퍼런스는 해마다 주요한 주제를 선정하고 회원국과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치매 관련 연구, 정보 및 정책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교류하고 있다.

AE는 'Strategic Plan (2016-2020)'의 수립을 통해 5개의 전략과 전략별 목표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다년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이후 'Strategic Plan (2021-2025)'를 수립하여 이전 계획의 성공을 바탕으로 주요 전략적 목표 일부를 확장하였다. 주요 목표는 목표 1: 치매환자와 간병인에게 목소리 제공, 목표 2: 치매를 유럽의 우선순위로, 목표 3: 인식 변화와 낙인 퇴치, 목표 4: 뇌 건강 및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 목표 5: 유럽 치매 운동 강화, 목표 6: 치매 연구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7. 미국 / 영국 / 캐나다

해외 주요 국가별로 치매 관련 정책을 어떻게 특징적으로 수립했는지 살펴보면, 미국은 1992년 알츠하이머 질병 및 관련 치매 연구법이 제정된 이래로, 2009년 국가치매관리계획이 도입되었다. 미국 알츠하이머 연구 그룹은 국가치매관리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며 2개의 권고안 제시하였는데, ❶ 치매예방, 국가부양, 민관협력을 통한 알츠하이머 솔루션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것과 ❷ 프로젝트 추진지원에 국가가 적극 협조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2014년 알츠하이머 책임법(AAA)제정 및 연구에 예산이 투자되었고, 2016년 3억5천만달러(약 3,925억 원)를 지원하였다.

영국의 경우, 1999년 정신건강 국가서비스체계, 2001년 노인대상 국가서비스 체계, 2005년 만성질환 국가서비스체계 수립되었다. 2009년 제1차 국가 치매관리계획이 발표되었으며 2012년 2차, 2015년 3차 계획은 영국총리의 치매 대응 전략으로 발표되었다. 2016년 NHS는 치매돌봄 경로로 5개 핵심영역을 추출하였는데 preventing, diagnosing, living, supporting, dying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캐나다는 국가치매관리계획(A Dementia Strategy for Canada: Together We Aspire)을 발표하였는데, 치매 예방으로 치매의 임상적 징후 감소와 뇌 질환 예방하는 것과 치매 치료법 향상 및 개발을 위해, 치매 환자의 연구참여 및 지식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나아가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 향상이 제시되었는데 치매 인식 개선 뿐 아니라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나타났다.

## 8. 일본

건강 및 복지 서비스와 정책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많이 참고하는 일본의 경우, 1986년 치매노인 대책본부에서 치매 관련 정책이 출발하였다. 1990년대 골드플랜은 중도 치매 환자만을 주요 대상으로한 반면 2006년 개호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자의 존엄유지를 추가하여 치매환자 지원을 강화하였다. 2012년 치매 대책 추진 5개년 계획('13-'17) 수립되었고(오렌지플랜), 2015년 新오렌지 플랜('15-'25)을 공표하였다. 이는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친화적 지역 사회의 성장을 위해! 라는 국가적 슬로건을 가지고 치매관리종합정책 발표한 것이며, 2019년 아베총리 내각에 의해 추진되어 이니셔티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新오렌지 플랜은 7가지의 추진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의 정책도 의료나 복지서비스의 연계, 지역 완결형 서비스의 기반 마련 등 한국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

다. 1) 보급 및 계발로, 치매와 관련된 인식 개선 캠페인과 인지저하증에 대한 서포터 양성 및 활동을 지원한다. 2) 의료 및 조호로 치매예방에서부터 초기, 급성악화기, 중기, 생애말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며, 치매 케어에 대한 패스(care path)로 치매 정보를 연계한다. 3) 초로기 치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정보 보급 계발, 초로기 치매 환자 지원 핸드북 배부, 초로기 치매환자의 상담 창구 설치, 환자 지원 코디네이터 배치에 의한 정확한 상담 등을 제공한다. 4) 돌봄제공자에 대한 지원으로, 일-조호 양립과 조호 이직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 환경의 모델을 보급하고, 심포지엄 및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을 표창 및 심별마크를 수여한다. 5) 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으로, 생활지원 코디네이터(지역 지원 추진원)를 두어, 치매 환자 포함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식품(스마일 케어 식품)을 이동 판매하며 소형점포나 택배 서비스로 치매환자를 지원한다. 6) 치매에 대한 연구 개발 강화도 추진되었다. 치매환자의 자립, 돌봄 제공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조호 로봇 기술이나 ICT기술을 활용 기기 등의 연구 개발을 추진하였다. 7) 치매 돌봄 제공자의 관점을 중시하여, 치매 정책의 점검과 성과 평가에 치매환자와 가족의 관점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그림 2-4] 일본의 환자 가족 관점 치매정책 전환

위의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 치매 정책을 비교하여 정리해볼 수 있는데, 우선 지역포괄 케어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생활’을 중심으로 의료, 장기요양, 생활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케어 매니저가 ‘치매’의 관점 뿐 아니라 ‘삶(환경)’의 관점으로 서비스를 매니징한다. 서비스의 복합화 뿐 아니라 생활 환경에 대한 분석을 적극적으로 고민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환자 가족으로 관점 전환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환자의 증상과 환자 중심의 보호자 개입 등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아래의 그림과 같이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 독려를 위해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치매예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치매예방은 정상 또는 MIC(Mild Cognitive Impairment :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인지기능 저하를 억제하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에 치매예방 수단으로 전문 지도자 통한 운동/학습, 뇌 트레이닝, 소통훈련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치매 예방 앱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 이는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제공한 사례의 증가를 통해 반증되고 있다. 2019년도 치매예방 앱 이용자 수는 약 38만명으로, 고령자의 스마트폰 보유율 상승, 생명보험회사 치매 예방 앱 신규 도입, 기존 이용자의 확대로 급격히 성장 중이다.

〈표 2-1〉 일본의 치매예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기업 및 예시

기업명	개요
bsprInc.	뇌 트레이닝/운동, 식사관리, 비상연락 기능
Daiichi 생명보험	안구의 움직임으로 인지기능 체크
Taiyo 생명보험	보행속도 변화로 치매 조짐을 인지하여 본인 및 가족에게 통지
NippontectSystems	음성을 AI로 분석해 인지기능을 체크
NissayInfo Tech Co.	워킹앱내에 자사 개발한 생활 뇌 트레이닝 신설 보험사 계약자 대상 서비스 앱
SOMPO himawari 생보	안구의 움직임으로 인지기능 체크, 생활습관에 관한 어드바이스, 일반용으로 개방
seetdoctor	뇌트레이닝및 상식퀴즈
Fujitsu FomLt.	오사카시 치매환자를 위한 정보 및 치매 체크 기능

구체적인 예로, Taiyo 생명보험의 치매 예방 앱은 IT개발회사인 Neos Corp.과 공동 개발한 치매 예방 어플리케이션이다. 보행속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장래에 치매, MCI의 위험 조짐을 발견한 경우, 사용자 본인 및 가족들에게 통지하는 기능이 특징적이다. 해당 기능은 도쿄 건강장수 의료센터의 Obuchi Syuichi 의학박사의 감수



로 개발되었으며, 치매 주의 기능은 보행속도가 일정 기간 급격히 저하한 경우, 알람 기능이 작동되는 것으로, 운동 습관과 같은 부분의 생활 개선 노력을 한다면 장래에 인지기능 저하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다. 뇌 트레이닝 기능이 있어 주의력, 발상력 등 뇌 기능 향상을 위해 활용가능하며, 등록자 수는 6만 8천명으로 적극 이용자 수는 약 1만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충실한 콘텐츠 및 관리성 향상 도모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2-5] Taiyo 생명보험의 치매 예방 앱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IT회사인 bspr Inc.의 뇌에 좋은 앱도 있다. IT회사인 bspr Inc.는 IT서비스 사업의 하나로 치매 예방을 위한 ‘뇌에 좋은앱’을 개발하였다. 도보 수 및 식사 관리와 뇌 트레이닝 기능으로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인공지능에 의해 각각의 활동 내용을 학습하여 이용자에게 최적의 목표 활동을 산출해 매일 통지하는 기능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이용개시 시 정기적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고(1회, 200엔), 치매 예방을 위한 액티비티가 제공되기도 한다(무료). 해당 상황을 가족끼리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가족 사이트(1가구당 월정액 500엔)도 운영하고 있다. 운동, 식사, 뇌 트레이닝등 활동 상황 및 뇌 연령 등

건강상태, 사진 공유가 가능해 서로 소통 기회를 촉진하기도 한다. 덕분에 노년층 뿐 아니라 10대부터 연령층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등록된 사용자만 6만 5천명이 이용 중이고, 특히 70대 이상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 2-6] bspr Inc. 뇌에 좋은 앱

## 9. 독일

독일은 치매에 대한 예방과 대응 정책이 매우 체계적이고 꼼꼼한 국가 중 하나이다. 2021년 기준, 독일의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22%에 달하며 2050년에는 약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 알츠하이머 학회(Deutsche Alzheimer Gesellschaft e.V.)’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독일의 치매환자는 약 150만 명이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약 1천7백만 명)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치매 환자의 2/3는 80세 이상 노인으로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또한 전체 환자 중 70%는 여성이다. 치매 환자는 기대수명 연장과 함께 매년 4만 명씩 증가해 2050년에는 3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이후 2021년 초 발간된 National Dementia Strategy에 따르면, 독일에서만 약 160만명이 치매를 겪고 있으며 2050년에는 그 수치가 28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2018년 기준 80세에서 84세 사이의 노인 인구에서 33만 명 이상이 치매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이 수치는

2050년까지 55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독일 내 치매 환자와 사회적 부담이 급증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2012년 9월, 독일 정부의 The Ministry for Familie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와 The Ministry for Health의 장관들은 “National Alliance for People with Dementia”를 수립하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행된 연맹은 연방 정부, 국가, 지방 당국, 협회 및 치매 환자를 위한 시민사회 분야 협회가 함께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의 이해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특히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국가적 치매 플랜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독일도 타 국가와 같이 국가적인 치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후 연방 정부는 정치, 사회, 연구 등 많은 분야와 함께 독일의 국가 치매 전략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최종적으로 2020년 9월부터 2026년까지 국가치매전략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국가 치매 전략의 주요 내용으로 4개의 중점 분야, 27개의 세부 목표, 160개의 조치가 합의되었다.

4가지 중점 분야는,

- 1) 치매환자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개발 및 설립
- 2) 치매환자와 가족 지원
- 3)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 및 요양 서비스 발전
- 4) 치매 분야 우수 연구 촉진 으로 구성되었다.

분야 1) 치매환자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개발 및 설립

치매환자들은 자기 결정, 동등한 기회, 동등한 사회 참여 권리가 있다. 치매는 인지 능력의 상실을 일으키는데 이로 인해 치매환자들은 일상생활을 지속하고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증가한다. 그들은 사회생활에 참여하기 위해 치매에 민감한 환경과 다른 사람들의 지원에 의존한다. 따라서 치매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개발하는 것은 지속적 정책 과제이며, 참여를 보장하는 수단은 치매에 민감한 사회 공간의 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하여 주거 지역 및 마을 개발 뿐 아니라 지역 돌봄 및 지원 계획을 목표로 한다.

- 치매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치매환자와 가족은 개별 맞춤형 치료 및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돌봄 및 지원 서비스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지역적 협력 형태가 수립되어야 하며 지역 공동 책임의 새로운 관행이 실현되어야 한다. 현재 거의 모든 연방 주에 치매 전문 센터, 역량 센터 및 유사한 구조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상담센터에 지원을 제공하거나 구조 개선을 장려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된다. 국가 시범 프로그램의 범위에서 500개의 지역 지원 네트워크가 구축되거나 추가로 개발되었고 이들의 지속적 개발은 독일 노인 단체 협회(BAGSO)의 네트워킹 센터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 치매환자를 위한 이동성 개념 개발

더욱 많은 대중교통 직원이 'Dementia Partners'(독일의 치매 친구 프로그램)가 되도록 훈련되어야 하며 보완적인 이동 서비스가 확장되어야 한다. 지역 대중교통은 독일 전역에서 전체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 독일 노령 조사를 통해 40~85세 중 장년층의 2/3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치매환자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한 요소로 지정됐다. Bürgerbusse(커뮤니티 버스)의 개념은 이동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한 제안이다. 이 버스들은 대부분 작고 개인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치매환자가 겪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사용하기 쉬운 버스들이다. 커뮤니티 버스는 이미 일부 연방 주에 존재하나 전 지역에서 접근성이 쉽게만 들어져야 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독일 도로 교통 규정 제46조에 따라 치매환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 주차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자격들에 대한 정보는 치매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

- 치매환자에 대한 자발적 참여 및 비공식적 지원 장려

치매환자들은 증상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치매환자는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이 돌봄을 지원하며 비공식적으로 이웃, 친구들이 지원한다. 이러한 형태의 지원은 귀중한 사회적 자원이다. 치매환자가 사회와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웃, 주거 지역, 자치 단체 수준의 지원이다. 또한, 시 차원의 자금 조달 기회를 활용하고 연방 주들의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한다.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 봉사활동 또한 한 가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주로 스포츠, 육체적인 레크레이션, 교육과 문화의 영역에 관여한다. 자발적 참여는 특히 14-29세 사이에서 두드러지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유형의 자원 봉사자들은 치매환자 지원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이들의 참여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방문 돌봄 서비스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중요한 서비스이다.

#### • 치매환자를 위한 대중의 인식 제고

치매를 둘러싼 낙인과 선입견을 없애려면 광범위한 대중의 인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공공 교육은 국가 치매 전략의 주요 목표이다. DAIzG는 프로젝트 ‘Dementia Friends’를 통해 치매에 대한 과정과 환자를 대하는 적절한 방식들을 교육해준다. 약 56,400명이 교육을 받았고 청력손실과 관련한 교육도 제공될 예정이다.

2014년 이래로 Dementia Week로 알려진 홍보 행사는 세계 알츠하이머의 주간에 1년에 한 번 개최되고 있다. TV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잡지 및 소셜 미디어 등에 치매 관련 내용이 노출된다. 이는 치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몇 년 동안 인식을 꾸준히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될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치매환자 가족과 접촉하게 되는데 연령에 맞는 적절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소셜 미디어 및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주거 시설에서 치매환자의 사회적 참여를 장려하는 방법에 대한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대회들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예술 및 문화행사를 통해 치매를 알리고 교육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기회들도 제공해야 한다.

#### • 치매의 위험 감소

수많은 연구에서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치매 발병을 지연하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보호 요인을 확인하였다. 균형 잡힌 식이, 규칙적인 신체 운동, 사회 활동 및 인지 훈련은 치매 발병 가능성을 줄인다. 고혈압, 비만, 알코올, 흡연은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독일의 건강한 영양과 더 많은 신체활동을 위한 이니셔티브는 이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음주 관련 캠페인도 운영된다. 영양과 치매 사이의 연관성은 추가로 조사될 계획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 발병 위험은 유전적 소인이 현저한 경우에도 건강한 생활방식으로 감소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좋은 건강 교

육은 건강 문해력 강화의 핵심인데 독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건강 문해력에 제한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건강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정보를 준비하고 접근해야한다. ‘예방 가정 방문’의 맥락에서는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 개개인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여러 가지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기금이 제공하는 건강증진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예방 기금을 활용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 치매환자를 위한 주택 개념 개발

치매환자들은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주거 환경은 조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향후 몇 년 동안 독일에서 치매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주택 개념 차별화가 필요하다. Altersgerecht Umbauen(연령에 맞는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계단, 좁은 문 또는 욕실을 바꿀 수 있다. 요양 시설 또한 더욱 확장되어 주거 지역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림 2-7] Altersgerecht Umbauen 예시: 장벽이 감소된 집

## 분야 2) 치매환자와 가족 지원

대부분의 치매환자들은 주로 가족들에 의해 보살핌을 받는다. 치매환자들에게 필요한 관리 및 지원의 양은 개개인마다 다르며 특히 형태와 중증도에 따라 다르다. 치매에 수반되는 인지적 변화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치료보다 더욱 까다롭고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치매환자 가족들은 일상생활과 치료에 잘 대처하기 위해 임상 상황과 상담 및 지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 향상이 목표로 세워졌다. 또한 치매환자들을 고용 중인 사업체, 담당자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족들의 치료 및 치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장기 요양 및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확대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일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치매환자 가족들의 예방, 건강증진 및 재활 또한 확대될 것으로 여기에는 가족 위기 상황에서 특별 전화 상담 및 심리 사회 상담과 건강 치료 및 예방 건강관리를 포함한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한 특별 예방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 또한 개선되어야 하며 협력 구조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 •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 향상

치매환자들과 가족들은 치매 진행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야하기 때문에 조언과 지원이 필요하다. 상담은 가족들에게 지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며 집에서 상황을 관리하는 첫 단계이다. 동시에 상담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일반 및 전문 형태로 모든 요구사항을 다루는 광범위한 상담 서비스가 있으며, 장기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장기 치료에 대한 상담도 진행된다. 치매환자 가족들은 종종 밖에서 지원과 상담을 받는 것이 어렵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익명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매우 중요하다. Alzheimer hotline은 매년 5,000-6,000건의 전화를 받는다.

이와 함께 법적 상담에 대한 장벽을 낮추려면 지역 차원에서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치매환자 가족들은 장기 요양 및 법적 자문에 접근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들이 더 이상 자신의 상태로 인해 본인의 법적 문제를 관리할 수 없을 때, 가족이나 기타 간병인이 법적 보호자로 지정될 수 있다. 치매환자들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이러한 보호를 위해 법률 자문 제공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 중 하나이다. 이주, 이민의 경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가족들에 대한 상담, 지원에 대한 정보 또한 필요하다. 이들은 언어적, 문화적, 종교적, 제도적 장벽 등을 가져 자격이 있음에도 혜택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Der Pflege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 받은 사람들은 이주, 이민 경험을 가진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한다. Robert Bosch Foundation 프로젝트 또한 이주 경험이 있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나은 조언을 제공하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연방 주는 치매 요양 전문 센터를 통해 정보 출처를 제공하고 여기에 다국어 상담 서비스 정보도 포함된다.

#### • 조기발병 치매와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 확장

독일에는 65세 미만의 치매 환자들이 약 25,000명 있다. 전두엽 치매나 루이체 치매와 같은 희귀 치매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다운증후군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이는 일반적인 노년기의 알츠하이머 치매와 다르다. 대부분은 고용 상태에 있으며 자신의 전문 활동을 수행하며 치매 증상의 변화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조기 퇴직을 초래하고 이는 종종 치매환자의 요구가 아닌 비자발적인 퇴직이며 이들은 회사에서 적절한 고용 옵션을 찾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 통합 사무소를 통해 조기 발병 치매환자들과 고용주가 영향을 받는 문제들에 대한 조언과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조기 발병 치매와 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은 독일의 국가 치매 전략의 한 목표이다.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치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기 발병 치매환자들의 요구를 요약한 회사용 핸드북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알츠하이머 전화 서비스를 통해 회사에 상담 서비스가 확장되며 치매 친구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조기 발병 치매환자들을 위한 온라인 자조 모임을 개발하고 자문 기관인 ‘치매와 함께 살기’를 통해 긍정적 경험을 확장할 수 있다.

#### • 여성과 남성을 위한 고용 및 돌봄 조정

독일에는 현재 약 250만 명의 가족 돌봄자가 있으며 이 중 약 165만 명이 여성이다. 모든 가족 돌봄자의 1/3은 일을 하고 있다. 가족 돌봄자는 하루 평균 4.6시간을 가정에서 돌보는 시간으로 보내고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직업이



있는 가족 돌봄자가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고 이는 종종 피로, 질병, 직장에서의 결근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회사 또한 가족 돌봄자를 지원하고 작업 관리를 조정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족 기반 치료에서 남성의 참여를 더욱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한다. 가족 돌봄 제도와 휴가는 근무 시간 감소를 촉진하고 장기 요양 보험은 일시적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최대 10일 동안 장기 요양 수당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치매환자들의 가족에게는 기업 문화와 회사 내 수용 및 지원이 특히나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주는 프레임워크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추천해야 한다. 회사가 임명한 Pflegelotsen(care pilots)은 직장에서 가족 돌봄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Care Pilots는 업무 및 관리 조정, 돌봄 부담 및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 회사의 직원이다. 이들은 초기 단계에서 치료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주고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직장 이외에도 적절한 돌봄 인프라는 가족 돌봄자에게 필수적이다. 중요한 것은 부분 입원 치료, 외래 치료 및 기타 지원 서비스의 적절한 병행이다. 또한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가족돌봄휴가 및 요양휴가 강화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 • 가족 갈등을 겪는 치매환자 및 가족을 지원

치매환자들의 자녀, 배우자는 대부분 돌봄의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치매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어렵고 스트레스로 다가와 우울함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갈등이 발생하면 가족들은 위기에 대처하는 데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 돌봄자가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통해 간병인을 교육하고 치매 치료 과정에서 폭력을 예방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전화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National Crisis Hotline은 기존 Hotline과 함께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으로 전화 상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가능한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심리 상담 서비스 접근 향상을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가족 돌봄자를 위한 온라인 자조 이니셔티브는 온라인 자조 그룹을 위한 자조 포털을 개발하고자 한다. 'in.kontakt' 앱은 경험,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지원할 수 있다.



[그림 2-8]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핫라인: in.kontack 앱

치매환자 가족들의 건강 개선도 예방 관점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고 집에서 돌보는 것으로부터 거리를 둘 필요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 돌봄자들을 위한 재활 서비스 제공 자격을 별도로 설정하였다. 맞벌이 가족 돌봄자는 개인의 소득 능력을 보존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연금보험 혜택을 청구할 수도 있다.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및 지원 비용은 장기요양보험 급여에 따른 구제급여 또는 예방 진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치매환자의 생애 말기 요양 지원

치매환자는 적절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가 필요하다. WHO가 정의한 완화의료에는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가족들은 죽음에 대처하고 좋은 완화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다. 호스피스 및 완화요양법에 따라 완화요양서비스와 호스피스요양서비스에 대한 민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치매환자는 주치의와 요양보호사를 통해 일반 의료 뿐 아니라 완화의료까지 받을 수 있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존엄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치매환자의 가족들을 지원하며 생애말기 환자를 돌보는 것 또한 국가 치매 전략의 목표 중 하나이며, 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독일의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가이드를 통합하여 사이트에 업데이트 하였다.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의 모범 사례를 전

국에 보급하여 좋은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의 결과와 가족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지역 네트워크와 호스피스 협회 간의 협력, 생애 말기의 치매환자와 동행하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을 수행하기도 한다.

### 분야 3)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 및 요양 서비스 발전

치매환자는 개인의 건강 관련 요구에 맞는 의료 및 요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서비스와 적절한 지원의 확장 뿐 아니라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능적인 서비스 네트워크도 중심적으로 중요하여 치매환자들에게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 간의 협력은 국가 치매 전략의 핵심 목표이다.

치매 외래 환자, 입원 환자, 단기 치료를 촉진하고 치매 맞춤형 설계 및 주거용 치료 시설을 강화, 병원의 치매 의료 서비스를 확대, 치매환자를 위한 예방 및 재활 서비스 확대가 목표로 세워졌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연방 정부는 주거용 장기 요양 시설이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원 여부를 조사하며 다양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 부문의 치매 관련 교육이 확대될 것이며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직업군에 기초 자격을 제공, 장기 요양 시설은 치매환자의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 병원 내 치매 및 섬망에 대한 검증된 선별 절차는 숙련된 인원이 수행, 치매환자의 상담·치료 및 돌봄 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 서비스 경로가 개발되고, 치매환자의 예방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모든 의료 서비스 부문에서 치매환자의 관리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검토하여, 필요 시 발전에 대한 조치를 한다. 치매에 민감한 완전 주거형 장기요양 구조화는 지속적 개발이 필요하고 보건의료서비스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 • 외래, 부분 입원 환자에 대한 단기 돌봄 강화

2017년 독일에서 장기 요양을 요구하는 약 3/4 정도는 집에서, 그 중 2/3는 가족들에 의해 단독으로 돌봄을 받았다.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은 대개 더 많은 지원과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단기 치료는 가정이나 위탁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위기 상황에서 제공될 수 있다. 치매환자의 주 돌봄자가 병원 치료를 받거나 질병을 가지게 될 수 있는데 이 때 단기 치료는 집에서 치료를 안정화 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단기 치료 시설의 수는 지난 20년 동안 감소했다. 치매환자들이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독일 전역에 걸쳐 단기 치료 시설을 개발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사회 치료’는 외래 환자 서비스를 사용하는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치매환자와 접촉하는 모든 직원과 치매 관련 문제를 다뤄보지 않은 모든 직원이 기초 교육(예: Dementia Friends 교육)을 받도록 한다.

#### • 치매에 민감한 설계 및 완전 주거용 장기 요양 시설 조직 홍보

완전 주거용 치료에서 치매환자의 효과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해서는 다중 전문 팀이 필요하다. 비의학적 형태의 치료는 치매환자에게 특히 의미가 있는데 물리치료, 정신과 및 심리 치료 등은 증상 완화 및 대처를 더 수월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 이러한 형태의 치료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치매환자들의 인지 장애로 인하여 이 환경은 가능한 관리 가능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편안하고 친숙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상생활패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한 구성이 필요하다. 직업 요법, 물리 치료, 언어 치료, 심리 치료 및 기타 비약물 치료에 대한 개발과 함께 치매환자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도입하기 위한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내 디자인 등이 포함된다.

#### • 병원에서의 치매 민감 건강관리

치매환자들은 병원에 머무르거나 입원할 때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므로 인지적 어려움과 행동 변화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치매환자는 병원에 입원하면 섬망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문 그룹의 체계적 협력이 필요하다. 치매환자의 효과적 치료 및 관리에는 적절한 건강 서비스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는 다중 전문팀이 필요하다. 병원의 의료 및 돌봄 조직이 치매환자들의 특별한 요구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외과적 치료를 계획 시 식사 제한 기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병원 내 대기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치매환자는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지침에 따라서 치매 관련 상태 진단 뿐 아니라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환자를 신경 클리닉, 기타 의료 전문가 및 상담 센터로 연계한다. 원격 의료는 치매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가정 방문 및 모바일 상담 서비스 또한 스트레스 상담을 제공하는 좋은 방법이다.

- 보건 서비스 네트워크 협력 지원

치매환자의 의료 서비스 개선은 참가자 간의 네트워크에 의존한다.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 및 돌봄 협력은 주거 장기요양 시설의 건강서비스 질의 핵심이다. 네트워킹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치매환자를 위한 ‘건강서비스 경로’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치매환자를 위한 개별적인 맞춤형 치료를 체계적으로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료 전문가와 일반 실무자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품질 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치매환자를 위한 모바일 재활은 특히 여러 질병이 있는 노인 환자에게 권장되며 친숙한 환경에서 재활을 받으면 재활 능력이 증가한다. 현재 독일에서는 모바일 노인 재활 서비스가 매우 적으며 결과적으로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 재활 서비스에 대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더욱 발전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 분야 4) 치매 분야 우수 연구 촉진

치매에 대한 포괄적 연구는 치매 발병을 이해하고 예방, 진단, 치료 및 재활의 가능성을 식별하는데 중요하다. 최신 연구 결과들은 치매환자, 가족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치매 연구에서 국내 및 국제 인프라를 강화하고 치매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치매 건강 서비스 연구를 지원하며 치매 연구 참여를 향상시키는 목표를 세웠다. 독일의 연구 기관들은 더 긴밀히 협력하고 치매 예방,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Dementia Health Services Research의 자원과 전문 지식을 모으기 위해 국가 네트워크가 설립되고 있다. 또한, 연구원들은 치매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 의료 보험 시스템의 익명화 데이터에 대한 접근 개선이 제공될 것이며 진단, 치료 및 건강관리 제공을 위한 더 많은 전략이 테스트 되어야 할 것이다.

- 치매 연구에서 국내 및 국제 인프라 강화

치매 분야 우수 연구를 위해 효과적 연구 구조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확장해야 한다. 치매 연구에서 국내 및 국제 협력을 개선함으로써 기존 구조와 지식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치매에 대한 효과적 치료법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 접근법을 탐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임상 연구를 강화하면 기본 연구 결과가 치매환자 표준 관리에 더 잘 통합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치매 학제

및 부문 간 연구 수행을 위해 국가 네트워크를 잘 확립해야 한다. 바이오뱅크는 귀중한 연구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으로 기존 바이오뱅크 확장과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치매 질환 연구를 위한 더 나은 데이터 기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치매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대중의 관심이 광범위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58%는 치매 예방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연구의 새로운 발전에 대한 과학적 논문은 치매환자 및 가족, 대중들이 잘 접근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해결을 위해 2014년 Alzheimer Society는 치매환자를 위한 Insight Dementia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치매 연구 결과를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치매 연구 결과에서 일반 대중에게 지식,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개념을 개발하고 있다. 치매 주제에 관심 있는 일반 대중,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의료 전문가, 연구원을 위한 정보 자료 역할을 할 것이다. 국가 임상 치매 연구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지역 임상 연구 센터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 • 치매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연구 지원

치매의 원인 및 효과적인 치료 모두 완전히 개발 및 확립되지 않았다. 앞으로 몇 년 간 기본 연구, 임상 연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치매 발달 및 과정에 대한 이해와 예방, 진단, 치료, 중재 및 재활 가능성에 대한 이해에 더 잘 기여할 수 있다. 식단, 영양은 또한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식이 요법과 치매의 상호작용에 대한 심층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임상연구 뿐 아니라 인구 수준에서 치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표 코호트 연구는 치매 원인을 식별하고 그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2016년 DZNE가 시작한 라인 랜드 연구가 한 예이다.

최소 30년 동안 이 연구에는 North Rhine-Westphalia 지역에서 약 30,000명의 참가자가 참여하는데, 라인 랜드 연구는 치매 원인과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발전을 위한 평생 종단 연구이며, 30세 이상, 85세 이상을 포함한다. 치매 예방, 치료적으로 관련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노인으로 구성된 코호트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대표 코호트 연구의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 치매 초기 단계에 대한 연구도 수행해야 한다. 목표는 치매 예방, 진단, 치료, 중재를 개선하는 것이다. 인구 대표 연구에 따르면 69%의 사람들이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해 참여할 것이다.

바이오마커 및 유전자 검사는 증상이 시작되기 몇 년 전에 특정 환자 집단에서 치매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미래에 질병 초기 단계에서 치료 접근법을 테스트하고 환자 개별 맞춤형 치료를 위해 잠재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치매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사회 논쟁은 치매환자에 대한 일반 대중의 태도에 의해서 형성된다. 향후 조사는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태도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건강 모니터링 연구를 확대하여 치매 위험 지표가 실질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는 향후 전국 대표 건강 모니터링 연구에서 독일의 노인에 대하여 반복될 것이다. D80+ 라는 연구는 80세 이상의 노인들의 상황과 삶의 질을 조사한다. 처음으로 민간 가정과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인구 대표 정보를 수집하여 이 결과는 정책 결정자, 대중 및 연구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 • 치매에 대한 건강서비스 연구 자금 지원

치매환자의 참여는 자금 지원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이다. 치매환자가 참여하여 치매환자, 가족, 의사, 간호사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건강관리 기술 기회와 한계는 윤리적, 사회적, 법적 관점에서 평가되고 고려될 수 있다. 또 다른 초점은 가족 돌봄자의 상황과 가정에서의 장기 치료 상태이다. 가족 돌봄자의 개별 요구에 맞는 단계별 전략의 추가 개발 및 평가는 연구의 중요한 목표이다.

치매환자가 최대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2차 및 3차 예방(재활)전략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있다. 치매 모든 단계에서 자율성 도모를 위해 치매환자에 대한 상담이 어떻게 구조화되어야 하는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3차 예방 전략을 개발 및 평가하고 사회적 공간 설계 방안과 치매환자 상담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독일 건강 서비스 연구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증거 기반 예방 및 의료 제공의 지속 가능한 이행을 위한 많은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치매에 민감한 섭망 관리 및 퇴원 관리 적용 방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치매환자를 위한 의약품 승인 절차 가속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고 있다. 디지털화가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대화형 보조 시스템, 원격 의료 및 원격 간호, 로봇 공학 및 인공지능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전국 법정 건강 보험 기금 협회(GKV-SV)는 장기요양보험을 추가로 개발하기 위한 시범프로그램의 틀 안

에서, 특히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지원 기술을 다루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치매환자가 친숙한 가정환경에서 최대한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매환자의 자립과 자율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의 예방,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잠재적 기술 및 디지털 도구의 추가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공동 프로젝트 ReDiCare는 과중한 부담을 가진 가족 돌봄자를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지원 전략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일상 의료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치매환자를 위한 최적의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가족이 필요로 하는 기술은 무엇인지, 특히 여성 치매 돌봄자의 개인적 부담, 재정적 상황,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검토한다.

#### • 치매 연구 참여도 향상

치매환자의 요구와 요건에 맞게 건강서비스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치매환자와 가족이 처음부터 치매 연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알츠하이머 유럽은 치매환자들이 전체 연구 과정에 걸쳐 연구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치매가 진행되면 환자의 동의 능력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치매환자에게 적합한 환자정보 문서 및 동의절차를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치매환자와 가족을 참여형 치매 연구에 참여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연구진은 치매환자 및 가족과 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방법들에 대한 교육도 받을 예정이다. 향후 치매환자를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연구에 통합하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환자 자문 패널이 구축되며 자활 및 환자 조직이 네트워크화 된다.

## 10.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1,175,000명 이상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으며, 매년 알츠하이머 또는 다른 치매로 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진단을 받는다. 이러한 현황을 가진 프랑스는 알츠하이머병을 다루는 국가 계획을 개발한 최초의 유럽 국가이다. 목표에는 진단 개선, 더 나은 지원을 제공, 연구 가속화가 포함된다. 제1차 국가치매계획 2001-2005는 9억 1천만 유로(1조 2500억 원)의 예산으로 2001년 10월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알



츠하이머병의 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치매 관련 문제점들이 정책적으로 가시화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각 지방 단위에 기억치료센터, 지역단위에는 기억치료 및 자원연구센터가 단계적으로 설립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 돌봄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억치료센터에서의 상담을 통해 치매환자는 주치의가 확인한 기억 장애를 보다 전문적으로 진단 받을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따른 치매전문치료와 케어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제2차 국가치매계획 2004-2007은 조기진단체계와 치매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일반 치매 뿐 아니라 조기발병 치매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전문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치매 맞춤형 노인 요양 시설을 마련하는 등 1차 계획을 보완해 나갔다. 이 때 주간보호센터의 설치가 늘어나 치매 대상자들의 자리가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역 노인전문 코디네이션센터가 설치되었다. 1,2차 국가 치매 관리계획을 통해 프랑스는 치매의 조기 진단 및 진단체계 구축, 치매 전문 서비스의 제공, 불충분했던 의료센터의 설립, 정보 제공의 대중화라는 네 가지를 목표로 부족했던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체계화하였을 뿐 아니라 조기발병 치매 지원, 자원봉사자 시스템 마련 등 세밀한 전략들을 수립하였다.

3차 국가치매계획 2008-2012는 치매에 대한 종합적 관리와 치료 뿐 아니라 치매환자의 돌봄 제공자 중심의 기관 및 서비스 조직화를 강조하여 치매 정책 전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총 16억 유로의 예산이 부여되어 사회복지분야에 12억 유로, 보건에 2억 유로, 연구에 2억 유로가 편성되었다. 3차 계획에서 치매맞춤형 전문 의료시설이 확대되었다.

제4차 국가치매계획은 ‘신경퇴행성 질병 계획’ 2014-2019로 변경되었다. 3차에 걸친 국가치매계획으로 환자관리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한 프랑스는 2014년 4차 계획부터 치매관련 연구에 집중했다. 계획 명칭도 ‘신경퇴행성 질병 계획’으로 바꿨다. 이후 2021년부터 프랑스 정부는 국가계획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신경퇴행성 질환 로드맵 2021-2022를 발표했는데, 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취해질 조치들을 요약한 것이다.

프랑스에서 4차 계획부터 치매관련 연구에 집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2020년 7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이 출범하였다. 기존 국내 치매연구는 통합되지 못하고 연구결과들이 산재되어 있고, 기초-임상 연계 시스템이 부재하고 연구자 간의 좁은 네트워크로 인해 연구개발 속도가 저하, 산발적,

소규모, 중복 연구투자로 핵심기반기술 확보가 어려운 점, 국내 치매관련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점 등이 취약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선진국의 경쟁적인 치매연구투자와 빅데이터 활용 국제 컨소시엄 참여 통로가 부재하다는 점 등 글로벌 경쟁 심화 현상으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이 추진되게 되었다. 향후 국내에서도 활발한 치매 연구의 행보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신경퇴행성 질환 로드맵 2021-2022는 앞의 2001년, 2004년, 2008년에 시작된 세 개의 국가 알츠하이머 계획에 의해 선행되었다. 로드맵에는 다음 10개의 축을 중심으로 총 18개의 조치로 식별된다. 10개 축에는 1) 초기 진단 경로에 대한 지식의 통합, 2) 정신 행동 장애로 인한 경로가 중단되는 상황에서 더 나은 대책, 3) 젊은 치매환자에게 적합한 경로 및 해결, 4) 연구의 접근성 향상, 5) 병원 치료에 대한 적응, 6) 파킨슨병 환자의 경로에 대한 적응, 7) 프랑스 성과 촉진 및 모범 사례에 대한 교류, 8) 예방, 9) 사회 의료, 10) 건강한 민주주의가 있다.

#### 1) 초기 진단 경로에 대한 지식 통합

##### • 초기 진단 경로에 대한 지식 통합

치매 진단을 알리는 과정에 대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 센터에서는 환자 포화 현상이 관찰되어 진단을 내리는 데에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자원을 필요에 맞게 조정하고 관계자 역할을 더욱 잘 분배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진단 경로 확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고 확대해야하고, 접근성과 진단 품질을 결합한 전문가 진단 및 전문 센터를 재배치, 진료 과정에서 간호사 협력 매뉴얼과 간호사 역할을 배치, 진단 당시부터 환자의 상태를 재고하고 환자와 간병인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지표는 BNA(프랑스 국립 알츠하이머 데이터베이스) 수정 이후 첫 번째 진단의 MMSE를 고려, AAP ANDPC(지속적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국가 기관)의 교육을 받은 의사 수 + 6개월 내 진단을 제공한 의사 수, MND(신경 퇴행성 질환) 환자를 관리하는 분야의 실무 경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 수행이 있다.

##### • 초기 진단 및 유동적 경로를 위한 현지 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세 가지 주요 신경 퇴행성 질환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 센터 네트워크 혜택을

받고 있다.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질병에 필요한 역량을 보존하고 적기에 진단하고 복잡한 사례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관계자와 연계된 업무(기억력에 대한 상담, 연구 전문센터)에 대한 재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를 조정하는 역할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 • 환자 치료 교육

신경 퇴행성 질환 플랜은 환자 치료 교육 제공을 전반적으로 확장하였다. 교육 프로그램 수는 2015년 87개에서 2020년 200개로 증가하였다. 젊은 환자들을 위한 전문 센터가 개발되었고 프랑스 알츠하이머 협회에서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향후 2년 동안 환자 치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 2) 정신 행동 장애로 인한 경로가 중단되는 상황에서 더 나은 대책

인지 행동 시설(UCC)은 평가를 실행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 행동 장애를 보이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일정 기간 돌보는 후속 및 재활치료 시설이다. 이는 3번째 알츠하이머병 플랜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한 설문 조사에서 2018년 80개 이상의 인지 행동 시설이 응답한 결과 때로 표준적인 케어 조건과 거리가 먼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위한 치료 경로에서 인지 행동 시설 위치를 개선, 개발할 필요가 있다.

### 3) 젊은 환자를 위한 경로 및 대책

#### • 젊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특정 요구에 맞는 대책의 이해

레퍼런스 센터 유지 이외에도 환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시설화 모두에서 필요가 발생했다. 노인 요양 시설 직원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메인 트레이닝을 배포하고 각 지역의 노인 요양 시설에 젊은 환자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여 각 지역에서 젊은 환자를 수용하기에 적합한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치료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 • 젊은 파킨슨병 및 다발성 경화증의 특정 요구 사항에 맞는 대책 설계와 배포

파킨슨병 진단은 평균적으로 55-65세에 이루어지며 환자의 10%가 50세 이전에 진단되고 있다. 전문가들을 위한 예방, 지원에 대한 구체적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감소, 돌봄 지원, 재택 돌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4) 연구에 대한 접근성 향상

##### • 연구 접근성 향상

환자의 보호자 역할, 사회 대표자, 경제적 측면, 윤리 및 법적 측면, 삶의 질 측면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 임상, 역학 및 실험 연구 반영 및 설계 측면에서 환자, 가족 협회의 통합 및 참여와 연구 촉진이 필요하다.

##### • BNA(프랑스 국립 알츠하이머 데이터베이스) : 건강 데이터 허브 통합 및 인지 행동 시설 개통

BNA는 3번째 알츠하이머 정책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기억, 자원 및 연구센터에 자원을 할당하는 데 사용된 관리 기반이며 연구용 도구로도 사용된다. 2017년 보고서에서는 BNA의 데이터 품질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후 완전한 점검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개정 작업이 개시되었다.

##### • 우수 평가 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7개의 신경퇴행성 질환 연구 우수 센터(COEN 센터)들은 신경 퇴행 분야에서 프랑스 우수 연구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제 연구 센터와 경쟁할 수 있는 연구자를 확보하여 프랑스 연구에서 국제적인 규모의 눈에 띄는 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 진다.

#### 5) 병원 치료에 대한 적응

더욱 수용적인 병원을 위해 병원에서 신경 퇴행성 질환에 대한 치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입원, 응급실 방문과 관련된 환자의 위험을 줄이고 가족 돌봄자의 스트레스를 줄이며 직원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직업 인지도를 높이도록 한다.

## 6) 파킨슨병 환자들의 경로에 대한 적응

파킨슨병 환자의 특정 필요사항은 노인 요양원 직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신경 자극 환자 관리에 대한 워킹 그룹을 재개하고 신경자극 환자에 대한 새로운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노인 요양원에 대한 작업에서 신경 퇴행성 질환의 특정한 요구를 더욱 고려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 7) 프랑스의 노력에 대한 평가 및 모범 사례 교류

## • 유럽 및 국제적 활동 참여

프랑스는 치매 대응 글로벌 행동 계획 서명에 참여하였다. 프랑스의 존재 확고, 유럽 수준에서 국가들의 정책 모니터링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신경 퇴행성 질환과 관련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 행동 기회를 확인하며, GT 알츠하이머 유럽에서 프랑스의 존재를 확고하게 하고, 국제 치매 연구소와 관련 작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나가고자 한다.

## 8) 구체적인 예방

신경인지 장애는 자율성 상실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자율성 상실 방지를 위한 2020-2022 “건강한 노화” 전략은 특히 중년기에서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자율성 상실 예방을 위한 기금 회의, 전국 영양실조 주간, 노인을 위한 신체활동 및 건강한 식생활의 이점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집단 예방 활동 강화, 환자의 건강 상태 및 영양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의사의 조언, 독립 주택 및 요양원 건설 프로젝트에서 신체 적응 활동 등록, 의료 실습의 홍보 및 제공, 노인을 위한 신체 활동 및 스포츠 활동 등이다.

## 9) 사회 의료 복지

## • 특수한 휴식 제공

지역 보건 기관은 시설 폐쇄, 고립 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입 방식을 재정비 하였다. 간병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자원을 동원하여 새로운 개입방법을 설정하였다. 완전한 지역 네트워크, 지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접근 가능한 임시 휴식 솔루션, 필요한 환자들이 더욱 관리 받을 수 있는 솔루션, 지역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 현장의 다

양한 참여자 간의 조정 등 여러 제안이 있다.

- 알츠하이머 전담팀의 평가 및 사양서의 적응

3번째 알츠하이머병 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에 만들어진 알츠하이머병 전담팀의 임무는 환자들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행동에 대한 어려움을 줄이며 가족 돌봄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전담팀은 질병 초기 단계의 환자들의 집에서 3개월을 함께 지낸다. 이는 가정에서의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시설을 10년 동안 운영 후 획득한 경험과 상황의 개발을 고려하여 사양서를 조정하고 재검토해야한다.

- 가정간호서비스의 심리학 상담사에 관한 시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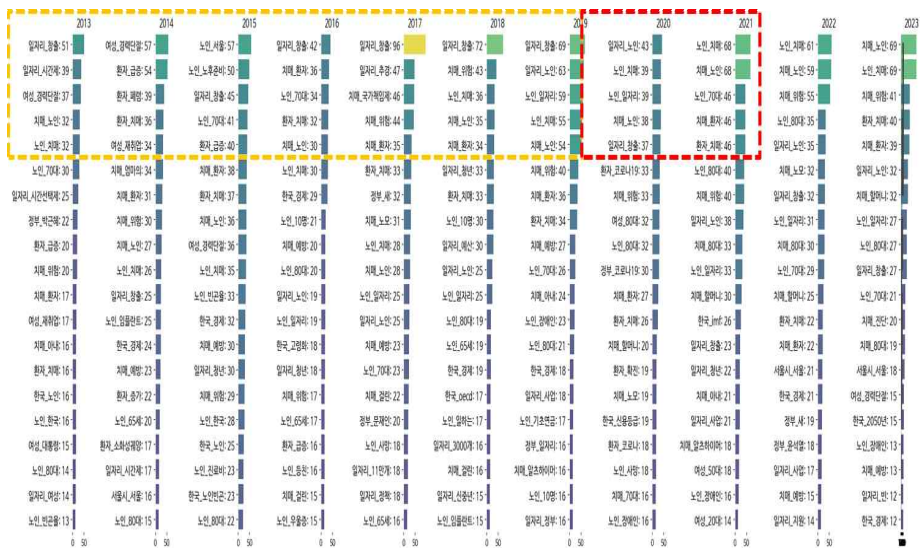
다목적 가정 지원 및 케어 서비스 내에서 심리학 상담 지원 시간을 제공하여 환자의 요구에 맞는 관리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10) 건강한 민주주의 모범 사례를 신경 퇴행성 질환에 적용, 지역 보건 기구로의 보급 촉진한다. 보건 위기인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는 특히 건강한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지역 보건 기구의 협회 및 대리인들과 공동으로 지역 네트워크에 배포할 질문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신경 퇴행성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실행을 검토한다.

로드맵에 포함된 다양한 프로젝트와 주제에 대한 관점을 알려줄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한 장소를 만들고 매년 2-3회 회의를 조직하여 피드백과 제안, 희망사항을 수집하고 알린다.



나아가 주요 키워드와 함께 등장하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트렌드를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23년에 이르기까지 10년동안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노인 일자리, 재취업, 경력단절 및 노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치매에 대한 키워드 역시 상위 5개 안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부터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매에 대한 키워드는 상위 5위권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10년치 뉴스 내 주요 키워드 및 동반 키워드의 트렌드

특히 고령사회의 진입 전/후로 노인성 질환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따라 일자리, 건강 등 생계나 안위를 포용할 수 있는 워딩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트렌드를 워드클라우드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2-11]에 보고되고 있는데 글자 크기에 따라 잦은 빈도와 중요도를 가지고 단어가 노출된 것을 정리한 결과이다. 고령사회 이전에는 일자리 창출과, 치매 노인, 치매 환자, 노인 치매, 여성 경력단절이 Ageism과 같이 등장하는 키워드였다면, 고령사회를 진입한 이후의 워드클라우드를 보면 노인 치매, 치매 노인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치매 위험 등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치매에 대한 키워드는 고령사회 진입 이후로 훨씬 더 많이,



자주 부각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림 2-11 고령사회 진입 전/후의 뉴스 트렌드]

국내의 10년치 뉴스 기사들의 흐름을 살펴봄에 있어 치매와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 키워드를 넣어 긍정/부정의 감성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치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

사가 많이 보도되며 점차 증가추세인 것에 비해, 파킨슨은 긍정과 부정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고, 알츠하이머의 키워드의 경우 치매의 원인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2020년 전까지만 부정적인 키워드가 급증했고, 그 외의 기간에는 오히려 긍정의 양상을 띄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11] 키워드 별 10년치 뉴스의 긍정/부정 감성분석

## 제5절 나가며

2024년 4월23일, 21대 국회 회기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치매’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의 ‘치매’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呆)’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인데, 이 때문에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2011년 이후 치매 용어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치매는 의학용어로 디멘시아(Dementia)다. Demnetia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였는데 ‘de’(박탈, 상실), ‘ment’(정신), ‘ia’(상태)의 합성어이며 ‘정신을 상실한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치매 증상이 정신 기능이 떨어져서 자신이 조금 전에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을 잃어버리는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단어의 뜻에 수긍은 간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치매, 이 한자어는 느낌이 다르다. ‘어리석다. 미치광이’ 의미의 ‘癡’와 ‘어리석다, 미련하다’ 의미의 ‘呆’로 치매(癡呆)는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뜻을 굳이 풀이하지 않아도, 이러한 의미의 치매라는 뜻은 부정적인 어감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에 한자 문화권 국가 중에서 치매라는 명칭을 바꾼 나라들이 있다. 제일 먼저 대만의 경우, 2001년에 실지증(失知症)으로, 일본은 2004년에 인지증(認知症)으로, 2010년 홍콩 그리고 2012년 중국은 뇌퇴화증(腦退化症)으로 용어를 개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치매(癡呆)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명칭 개정에 여러 번 시도를 해왔다. 2011년, 성윤환 의원이 ‘인지장애증(認知障礙症)’을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했으나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제3차 국가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하기 위해 ‘치매 병명 개정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치매의 부정적 인식이 명칭보다는 질환이 갖는 어려움이며 치료 기술의 개선 없이 인식개선 효과는 지속하지 않는다는 등 여러 이유로 명칭 변경은 보류되었다. 2017년 5월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치매국가책임제’가 도입됐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도 치매에 관심이 높아졌다. 2017년 7월 권미혁 의원은 ‘인지장애증’으로 치매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김성원 의원은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모두 2년 이상 계류되다가 아쉽게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러다 2021년 보건복지부는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200명(치매환자 가족 319명 포함)을 대상으로 「치매 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국민 43.8%가 치매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든다고 응답했다. 2014년도 38.6%에 비해 그 수치가 높아졌다. 어떻게 보면, 이 결과는 치매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졌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치매에 대한 거부감은 높아졌으나 치매 용어 변경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줄어든 것 같다. 용어 변경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하든지 바꾸든지 무방하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4년 52.3%에 비해 줄어든 수치이며, 여기서 함께 살펴봐야 할 점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7.7%로 2014년 22.8%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다. ‘치매’ 용어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현재 사용하는 용어가 대중에게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28.5%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2014년도 27.6%보다 다소 상승한 수치다. ‘용어를 바꾸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는 22.2%인데 이 역시 2014년에 19.3%보다 약간 올랐다. 무엇보다도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현재 사용하는 용어가 익숙하기 때문에’가 21.6%인데 2014년의 14.5%보다 크게 수치가 올랐다.

2021년과 2024년 수치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치매라는 명칭에 익숙해진 우리는 명칭에 대한 변경이 어려워질 수 있겠다.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대중에게는 치매가 더 많이 알려지고 더 익숙해지고 명칭을 변경해서 혼란을 주지 말자는 의견이 제기될 것이다. 이미 전국에는 각각의 시군구 지자체마다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치매센터가 이를 아우르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모든 기관의 명칭 변경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비용에 관한 부담감은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 그만큼 노인성질환인 치매 환자는 급증한다. 그에 따라 치매 환자와 그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들도 폭증할 것이다. 치매 명칭을 바꾸기 쉬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1대 국회 회기에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2021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지저하증),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인지허損증), 2022년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인지증),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지이상증),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신경인지장애), 2023년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뇌인지저하증), 2024년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인지저하증)이 있었다. 이들 법안

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또는 행정안전위원회(이종성 의원 안)에 계류된 상태로 21대 회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에 자동 폐기된다.

현대 정신의학의 도구적 진단체계인 DSM-IV에서 치매로 지칭되던 진단이 DSM-5에서는 치매를 주요 신경인지장애(Major Neurocognitive Disorder)로 진단기준을 개정했으나, 여전히 치매는 'Dementia'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치매 기준에 비해 증상이 경한 환자에서도 임상적 관심을 기울이고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진다(DSM-5: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매뉴얼 5차 개정판).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실시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서 국민의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2021년 국립국어원의 조사 결과 과반수(50.8%)가 다른 용어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치매'라는 용어를 변경한다면 가장 적절한 대체용어로는 '인지저하증'이 31.3%로 가장 높았으며, '기억장애증(21.0%)', '인지장애증(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해 2023년 기준 약 98만 명(65세 이상 노인의 10.41%)이 치매 환자로 추정된다. 치매에 대한 편견과 부정확한 정보를 개선하고, 치매에 대한 예방과 조기 진단,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용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에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치매'를 모두 '인지저하증'으로 수정하되,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뿐 아니라 비(非)치매·치매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과 그 가족도 서비스 대상이므로, '인지저하증안심센터'보다는 대상자가 포괄적이므로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인지건강'이라는 용어를 통해, 환자뿐만 아니라 고위험군과 일반주민, 가족 등도 대상으로 하는 인지건강 관련 예방사업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병명에 담긴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려는 사례로, 2011년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으로, 2014년 '간질'을 '뇌전증'으로 바꾼 경우가 있었다. 특히 정신분열증의 경우 사회적 이질감과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조현병으로 수정하기까지 3년여의 시간이 걸려 국회 본회의에서 명칭 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간질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법제처 주도로 4년이 걸려 뇌전증으로 고쳐 부르기로 했다. 특히 간질의 경우, 2010년 대한의사협회가 대한뇌전증학회와 한국뇌전증협회의 요청에 따라 용어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간질'의 공식 명칭을 '뇌전증'으로 고쳤다.

그러나 ‘치매’ 명칭 변경에 대한 견해는 다르다. 제21대 국회에서 치매 용어 변경을 6차례 시도했으나 결과를 얻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치매’를 변경하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 우려된다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치매가 이미 진단명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고, 치매 환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문제는 용어 변경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구축된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편견 및 인식개선 노력을 통해 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대한치매학회도 마찬가지로 ‘인지저하증’으로 용어 변경에 있어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치매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희석됐고, 조기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것이 단체의 생각이다.

일본, 중국, 홍콩, 대만과 같이 한자어를 사용하는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이미 용어를 개정한 ‘치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간질’은 되고 ‘치매’는 안된다는 입장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다.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에 계기가 된다면 국민적 합의를 반영하여 용어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10년 동안의 빅데이터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치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성분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중이 받아들이기에도 치매라는 단어보다 알츠하이머가 중립적이고 치매의 원인이자 증상인 인지 기능의 저하 정도로 표현한다면 질병에 대한 공포감도 두려움도 줄어들지 않을까 사료된다.



## 제3장

# Ageism & 세대 갈등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빅데이터 감성 분석

제4절 인터뷰 질적 분석

제5절 인사이트





# 3

## Ageism과 세대갈등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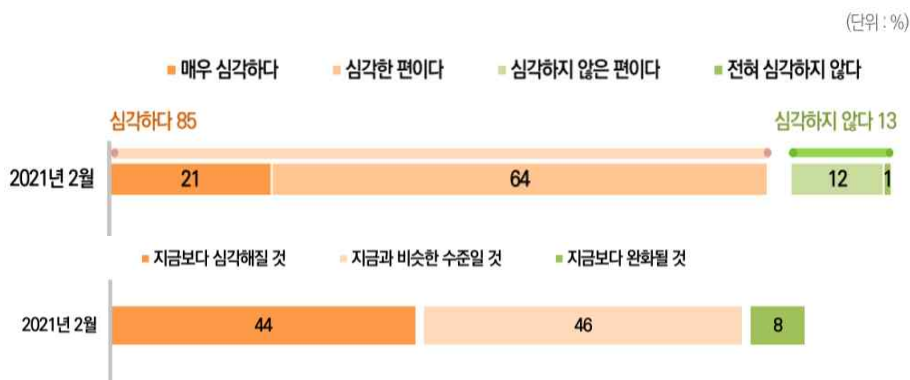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의료 및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인류의 평균수명도 연장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에서 노인층의 인구 비율 상승세 역시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해외 그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 고용 차별, 사회적 배제, 노인 빈곤 등 노인을 둘러싼 혐오 및 세대 갈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적 표현의 신조어가 젊은 세대 내에서 확산되면서, 특히 온라인 상에서는 노년층의 인권까지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틀니를 딱딱거리는 노년층을 비하하는 ‘틀딱’,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노년층에게 표출되어, 국가에서 주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을 비하하는 뜻의 ‘연금충’,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할머니를 매미에 비유한 ‘할매미’ 등 노년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이상 존경과 배려가 아닌 무시와 차별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느낌이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일본의 경우, 2010년을 전후하여 혐로(嫌老)사회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고 공해 대신 ‘노해(老害)’, 약육강식이 아닌 ‘약육노식(若肉老食)’과 같은 표현이 유행하기도 했다(서영아, 2019). 혐오에 대한 표현의 대상이 되는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고 표현의 사용자(젊은층)와의 접촉 빈도도 높지 않은 공간이기에 특히나 온라인은 노인 차별과 노인 혐오의 주요 무대가 되고 있다.

혐오 표현이란 어떤 개인 및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 인식되어 그들을 차별 또는 혐오하거나,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하되, 그 유형으로는 차별적 괴롭힘, 차별 표시, 공개적인 멸시와 모욕, 위협, 증오 선동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홍성수 외, 2016). 국가인권위원회(2016)에서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 방안 연구」에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혐오 표현의 실태를 조사하고 혐오 표현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혐오 표현에 대한 주요 표적 집단으로는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다문화) 4개 집단이 선정되었을 뿐 노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에 조사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응답의 대상 중 청장년층 90%가 세대 간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고, 특히 80.4%는 노년층과 청장년층 사이에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살펴보았을 때, 노인에 대한 혐오와 세대 간 갈등은 그 사이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실제로 2017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인구 구조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맞물려 언론에서도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급속히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화 속도에 대해 지적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리서치(2021)에서 세대 갈등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아래의 [그림 3-1]과 같이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81%에 달했고,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은 지금보다 심각하거나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약 90%가 동의하였다.



[그림 3-1] 한국리서치(2021)에서 조사한 세대 간 갈등 인식 및 갈등 전망

노인에 대한 혐오적 표현은 단순히 세대 간 격차, 세대 간 소통의 단절로 인한 극단적 표현으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발언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노인 혐오 표현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본 연구나,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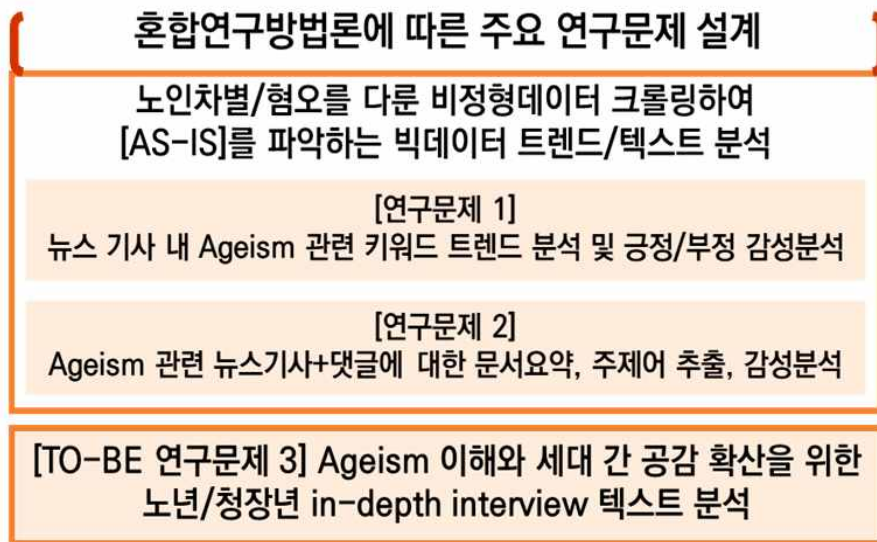
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연령주의(ageism)을 심화시키고 노인의 인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연령주의로 나타나는 노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등 세대 간 갈등에 대해 정확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초고령사회로 나아감에 있어 이러한 노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줄여 어떻게하면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노인 차별, 노인 혐오의 실태에 대해 검토하고, 이러한 표현이 언론 상에서 나아가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트렌드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세대간 갈등, 노인 차별 및 혐오가 등장하는 뉴스 기사 내 댓글의 의견을 통해 노인을 바라보는 태도 및 인식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과제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core theme)는 2025년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가 ageism의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이 팽배하기에, ageism에 대한 바른 이해와 현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고자 함에 있다. Ageism의 문제는 어떠한지, 세대간 갈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노인차별 및 연령주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시민사회 내 모든 전연령대의 사람들이 ageism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대 간 갈등의 해결과 ageism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연령주의의 문제 해결 방향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혼합 방법론을 활용하여 현안과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AS-IS 현안분석	Ageism이 개인과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세대 간 갈등, 노인차별 및 노인혐오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온라인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한다.
TO-BE 방향분석	기업, 시민사회, 민간부문 등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Ageism에 대해 공감 및 이해할 수 있고, Ageism에 대한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Personal in-depth Interview를 통해 정성적 분석을 실시한다.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노인차별 및 노인혐오 등이 우리사회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세대 간 갈등에 대해 파악하고자 빅데이터 기반의 양적분석과 세대 간 공감 확산을 위해 다양한 세대의 인터뷰를 통해 질적 분석을 실시하는 혼합연구방법론을 기반으로, 주요 연구 문제에 대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설계하였다.



[그림 3-2] 주요 연구문제 설계

나아가 연구의 진행을 위해 수행내용을 기반으로 한 연구 추진체계 및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Ageism에 대해 선행연구 및 다양한 자료들을 탐색함과 동시에 연구참여자의 보호 및 질적연구에 앞서 연구책임자의 소속 연구주관기관인 인천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의 1과 2에 해당하는 양적연구를 위해서는 Ageism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뉴스의 샘플 데이터를 크롤링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크롤링 하였다. 비정형 한국어 텍스트에 대해 어떻게 전처리를 할 것인지, 데이터를 클리닝 하는 과정을 거쳐 긍정/부정에 대한 추론이 가능한 알고리즘의 개발을 위해 샘플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성능을 검증 및 향상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별지 서식 제29호]

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서

발급번호	INUIRB-23-3차-70	발송일자	2023.06.29		
연구과제명	치매에 대한 대중 및 돌봄 제공자의 인식 차이 분석 :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디어 텍스트 분석				
과제관리번호	7007971-202305-002				
연구책임자	김경원	소속	무역학부	직위	교수
IRB 심의일자 (승인일자)	2023.06.28				
심의대상	<input type="checkbox"/> 연구계획서(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구계획서(시정/보완) <input type="checkbox"/> 지속심의 <input type="checkbox"/> 변경심의 <input type="checkbox"/> 종료보고 <input type="checkbox"/> 결과보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				
심의결과	승인				
승인번호	7007971-202305-002A				
총 연구기간	2023년 6월 28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승인 유효기간	2023년 6월 28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심사내용					
심의의견					
심의된 서류	1. 심의결과에 대한 답변서 2. 신규심의 신청서 3. 연구계획서 (ver1.1) 4. 연구계획서 요약서 (ver1.1) 5. 동의서(인간대상연구) (ver1.1) 6. 연구대상자 설명문 (ver1.1) 7.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				

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본 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은 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함을 증명합니다.  
본 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본 연구와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연구의 심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본 통지서의 사본은 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합니다.

[그림 3-3] IRB 승인 통지서

뉴스의 기사를 통해 키워드를 추출하여 트렌드를 분석하고, 키워드 기반의 주제를 추출 및 요약하여 텍스트 분석과 긍정부정의 감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뷰에 참여할 대상자는 사전에 재단과 협의를 통해 세대별로 선정하였고,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개인 심층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노년 세대와 청장년 세대로 나누어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청장년 세대의 경우 노년층을 대상으로 일이나 활동을 하고 있어 노년 세대와의 접점이 있는 대상으로 의도적 표집하여 선정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은 연구에 활용되는 음성 녹음 및 영상 촬영에 대해 동의하였고, 각각의 참여자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장소를 지정하여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량 반구조화된 질문지에 따라 심층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노년 세대와 청장년 세대를 대상으로 제공된 질문지는 비슷한 흐름에서 유사하지만 노년 세대에게는 추가적으로 세대 갈등 및 노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을 배치하여 세대 갈등이나 연령주의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해 확인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녹취한 내용은 전사작업을 거쳐 비정형데이터에 대해 전처리 및 클리닝의 과정을 거쳤고, 세대 간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의견을 텍스트 분석하고 질적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인사이트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수행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연구 추진체계 및 일정은 아래의 그림으로 정리하였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선행연구에 대한 literature review 및 질적연구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 심의	☑	☑			
Ageism 키워드 기반 뉴스 샘플데이터 크롤링 알고리즘 개발 및 데이터 크롤링	☑	☑	☑		
비정형 한국어 텍스트 샘플데이터의 전처리 및 클리닝	☒	☒	☑	☑	
긍정부정 추론 엔진 개발을 위한 샘플데이터 학습 및 성능 검증	☒	☑	☑	☑	
뉴스 기사 키워드 추출 및 트렌드 분석, 긍정부정 감성분석	☒	☒	☒	☑	☑
키워드 기반 주제 추출 및 요약, 텍스트 분석, 긍정부정 감성분석	☒	☒	☒	☑	☑
Ageism에 대한 인터뷰 가능 청장년층/노년층 인터뷰이 섭외 및 일정 조율	☒	☒	☑	☑	
Ageism에 대한 인터뷰 실시 및 녹취 내용 전사, 비정형데이터 전처리 및 클리닝	☒	☒	☒	☑	☑
Ageism에 대한 세대 간 의견 텍스트 분석 및 질적연구, 인사이트 도출	☒	☒	☒	☒	☑

[그림 3-4] 연구 추진체계 (프로세스 및 수행 내용)

## 1. AS-IS 현안분석의 세부내용

### 연구문제1+2: 미디어 뉴스 기사에서의 Ageism 양극화 트렌드 분석

• 가설: 국내 뉴스 기사에서 노인의 특성과 함께 등장하는 키워드, 나아가 긍정/부정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데이터 기간 및 소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 전/후인 2018년 이전의 5년과 2018년부터 현재(2023년)까지의 5년, 총 10년간, 구글 및 네이버 뉴스, 정치적인 성향을 고려하여 보수/진보/중립 대표 언론사 중심으로 크롤링

▶ 방송사 5종(KBS, MBC, SBS, YTN, OBS), 전국일간지 11종(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제일간지 8종(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전문지 2종(디지털타임즈, 전자신문)

▶ 경제(경제일반, 국제경제, 취업/창업)  
▶ 사회(사회일반, 노동/복지, 사건사고, 여성, 장애인, 의료/건강)  
▶ 문화(미술/건축, 요리/여행, 출판)  
▶ 국제(국제일반, 중국, 일본, 아시아, 유럽 EU, 러시아, 미국/북미,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 Ageism을 대표할 키워드 매핑:

▶ 일반적(General) 워딩으로 노인, 고령, 시니어 등  
▶ 세부적(Specific) 워딩으로 세대갈등, 노인차별, 노인혐오 등

## 2. TO-BE 향후분석의 세부내용

### 연구문제 3: Ageism에 대해 각각의 세대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세대 간 공감 확산을 위해 노년 세대, 청장년 세대의 개인 심층 인터뷰 및 질적분석

• 가설: 각각의 세대는 Ageism에 대해, 그리고 세대 간 갈등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이해와 공감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변화가 필요한가?

• 데이터 출처: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 선정한 인터뷰 대상자들과의 1시간에서 2시

## 간 가량의 인터뷰 내용

개인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청장년 세대는 20대, 30대, 40대 각 세대별로 1명씩 섭외하였으며 노년 세대는 노년기에도 왕성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고 노년학이나 노인 복지를 전공하여 해당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학계 구성원을 반영하였다.

〈표 3-1〉 인터뷰 참여자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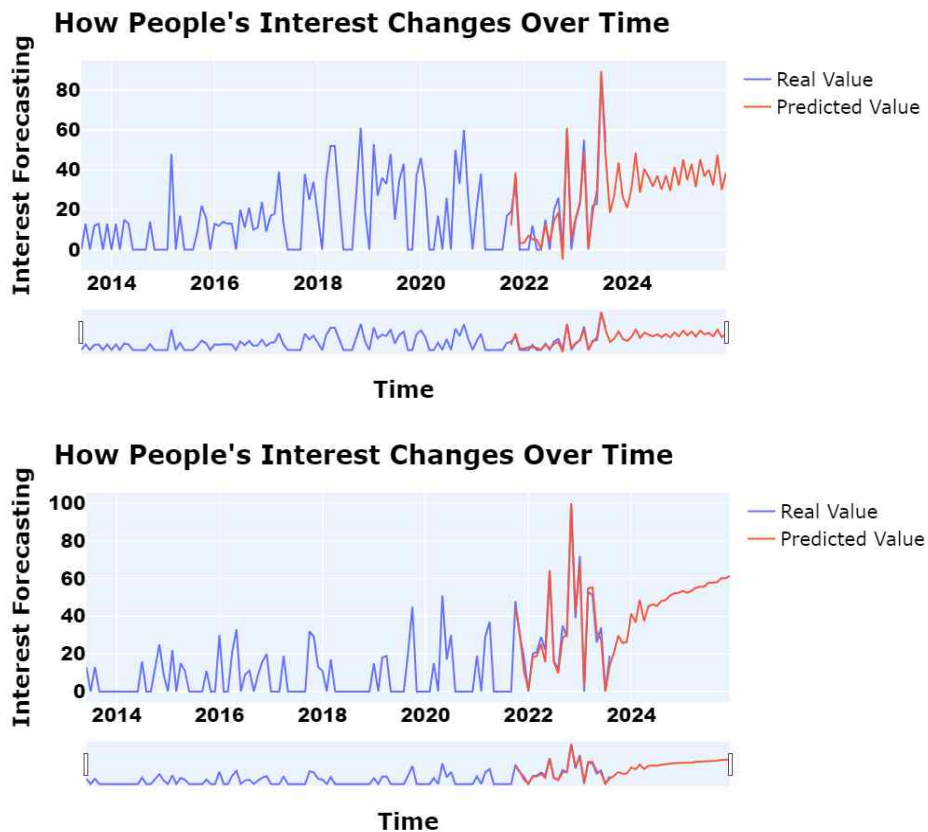
구분		연령대	성별	소속	비고
노년 세대	이근후	80대	남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정신건강의학과)	나는 죽을때까지 재미있게 살고싶다 등 저술
	이규원	70대	여	한국동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시니어 스토리텔러 양성사업
	김동배	70대	남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명예교수	에세이집 '시니어로 살기' 출간
	임춘식	70대	남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청장년 세대	최지원	20대	여	사단법인 대학생 비영리 민간의료단체 프리메드 대표	서울역 9번출구 매주 토요일 무료진료소 운영
	윤소훈	30대	남	가톨릭관동대학교 인천 국제성모병원 신경과 교수	파킨슨, 치매, 인지/기억장애 진료
	기우진	40대	남	페이 업사이클링 사회적기업 러블리페이퍼(LoveRe:Paper) 대표	페지수거노인을 자원재생활동가로, 페이 비싸게 매입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제3절 빅데이터 감성 분석

#### 1. Ageism에 대한 트렌드

Ageism에 대한 우리나라와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구글에서 Ageism 관련 검색 기록을 과거 10년치부터 현재까지 수집하였다. 인공지능(AI)으로 학습시켜 미래를 예측하도록 하여, 과거의 10년을 파악하고 2024년 이후의 전망을 예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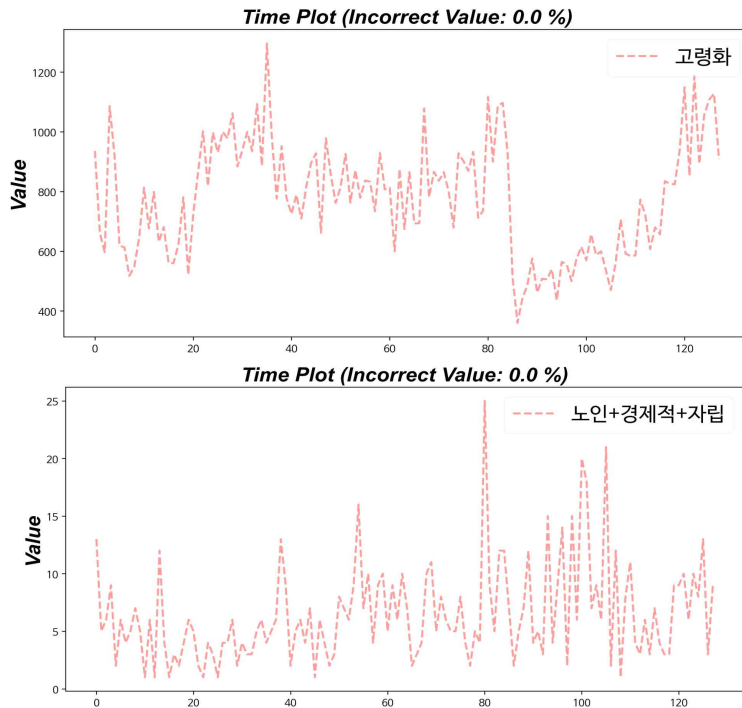
[그림 3-5] Ageism에 대한 글로벌(상) 및 우리나라(하)의 트렌드

위의 그림에서 상단은 글로벌 트렌드를 의미한다. 글로벌 관심도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23년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미래에도 지속될 가능

성을 92%의 정확성으로 예측하였다. 하단의 그림은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부터 증가하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상승하였다. 특히 2023년부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세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예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미래에도 이러한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정확성은 95%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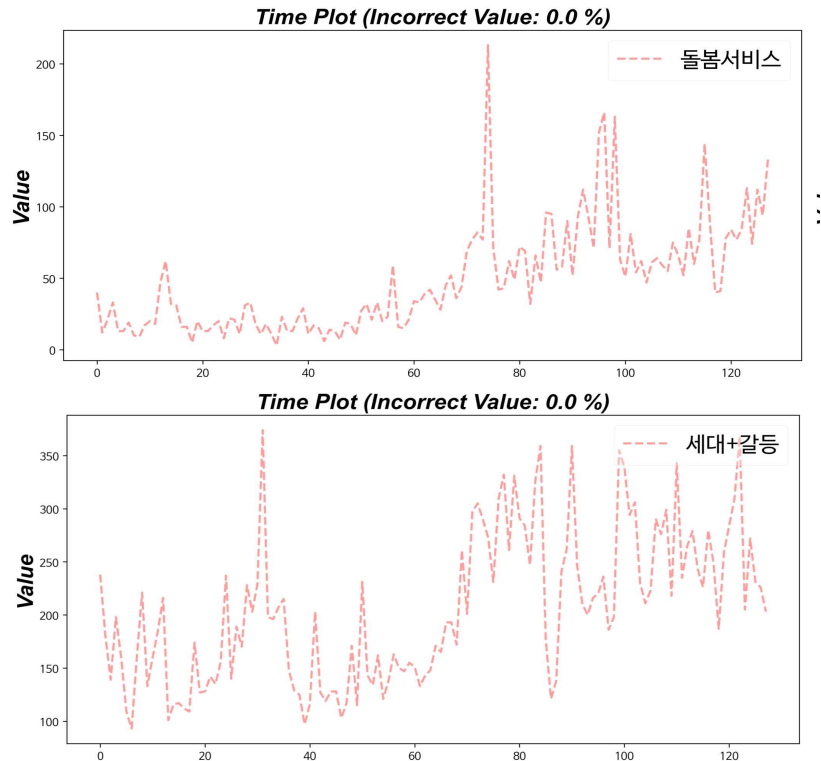
## 2. Ageism 관련 키워드 트렌드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증가되고 있거나,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상승된 키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고령화”,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꼽을 수 있는데 꾸준히 주기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로서, “고령화”의 경우 지속적으로 언급되다가 갑자기 혹은 감소했다가 다시 등장하는 패턴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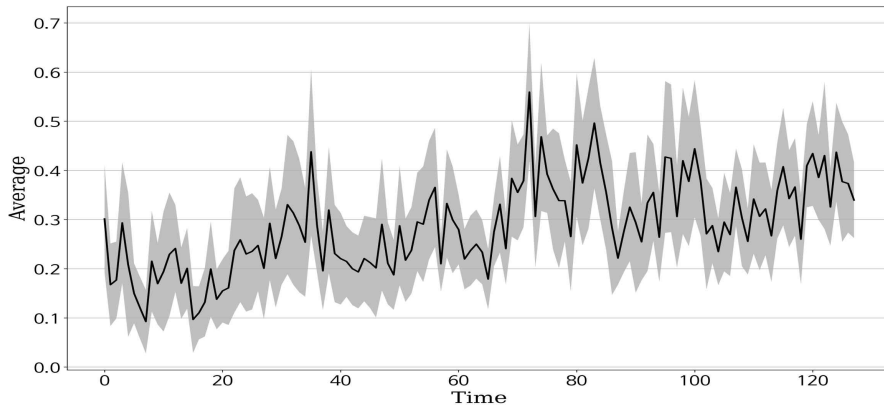
[그림 3-6] Ageism에 대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키워드: 고령화, 경제적 자립

그리고 노인과 관련하여 “돌봄서비스”, “세대 갈등”의 키워드는 최근들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세대 갈등”의 경우 변화의 흐름이나 폭이 매우 다이나믹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7] Ageism에 대해 갑작스럽게 증가한 키워드: 돌봄서비스, 세대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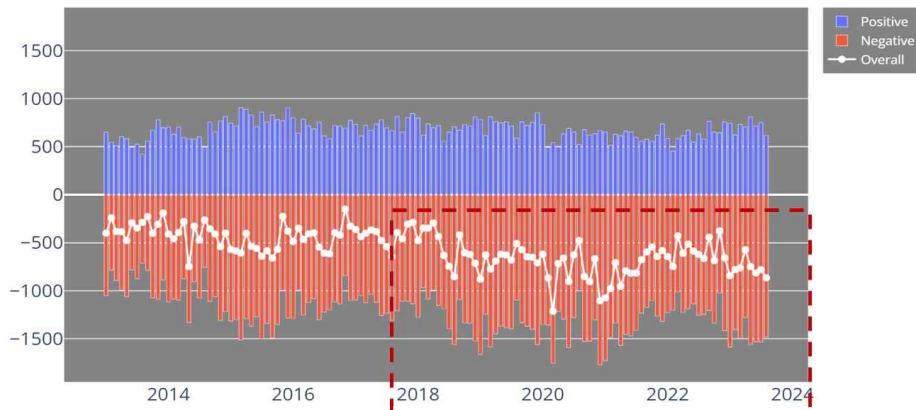
또한 구글이나 네이버 뉴스 상에서 Ageism에 대한 주요 검색어의 과거 10년치 수집을 통해, Ageism에 대한 검색어로 보도되는 뉴스 기사의 양의 추세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서 전반적으로 Ageism 관련된 키워드의 뉴스 보도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이고, 세로축이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보도되는 기사의 양을 의미하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인 차별, 노인 혐오와 관련된 뉴스 기사의 양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8] Ageism에 대한 우리나라 뉴스 기사 양의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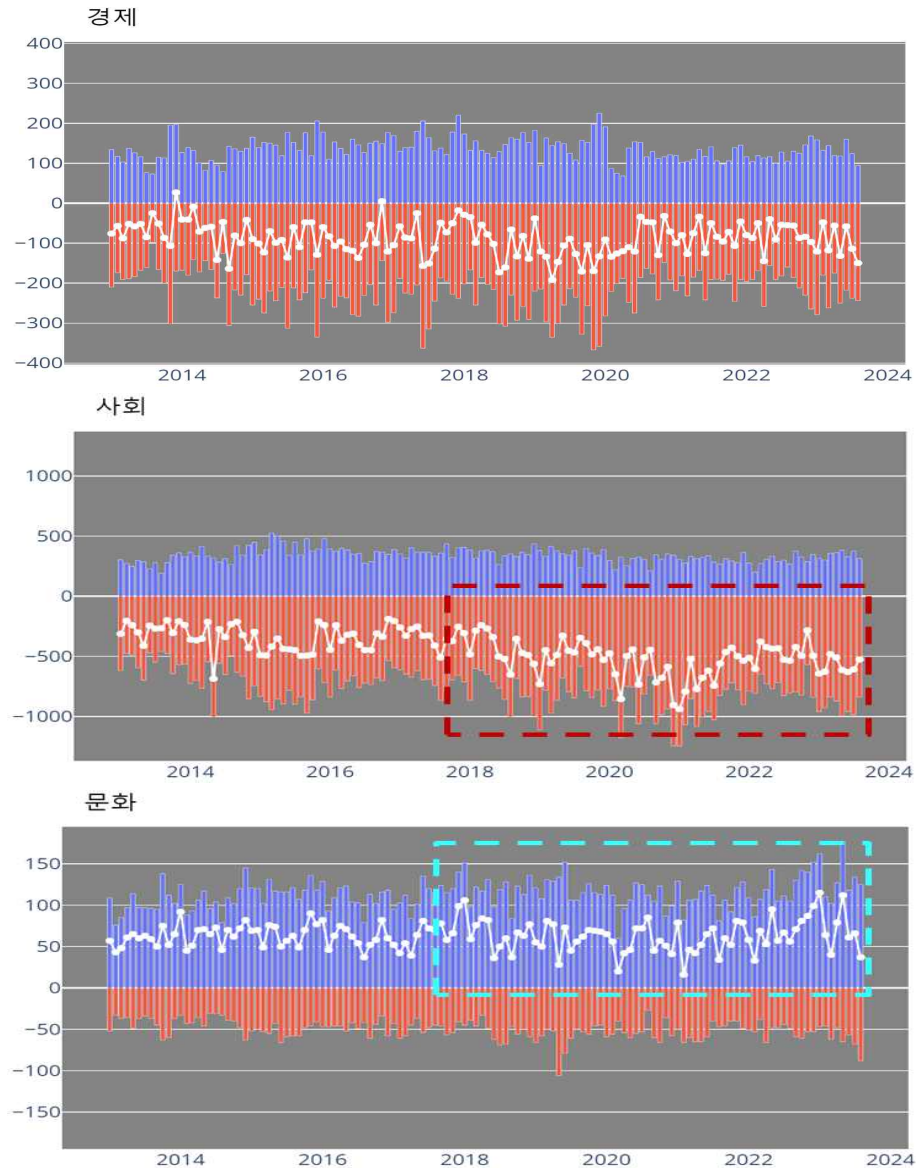
### 3. Ageism 관련 뉴스 감성분석 (긍정/부정 트렌드)

국내에서 Ageism 관련된 뉴스가 대중들에게 어떠한 뉘앙스로 보도 되고 있는지를 감성 분석하여 살펴본 결과, 고령사회 진입 이후로 부정적인 뉴스에 대한 보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결과는 아래의 [그림 3-9]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파란색이 긍정, 빨간색이 부정, 그리고 하얀색 으로 나타난 선은 전반적인 추세선으로 상대적으로 긍정에 비해 부정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2018년을 기점으로 부정적 기사의 수가 훨씬 더 많이 보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9] 국내의 Ageism 관련 뉴스 트렌드에 대한 감성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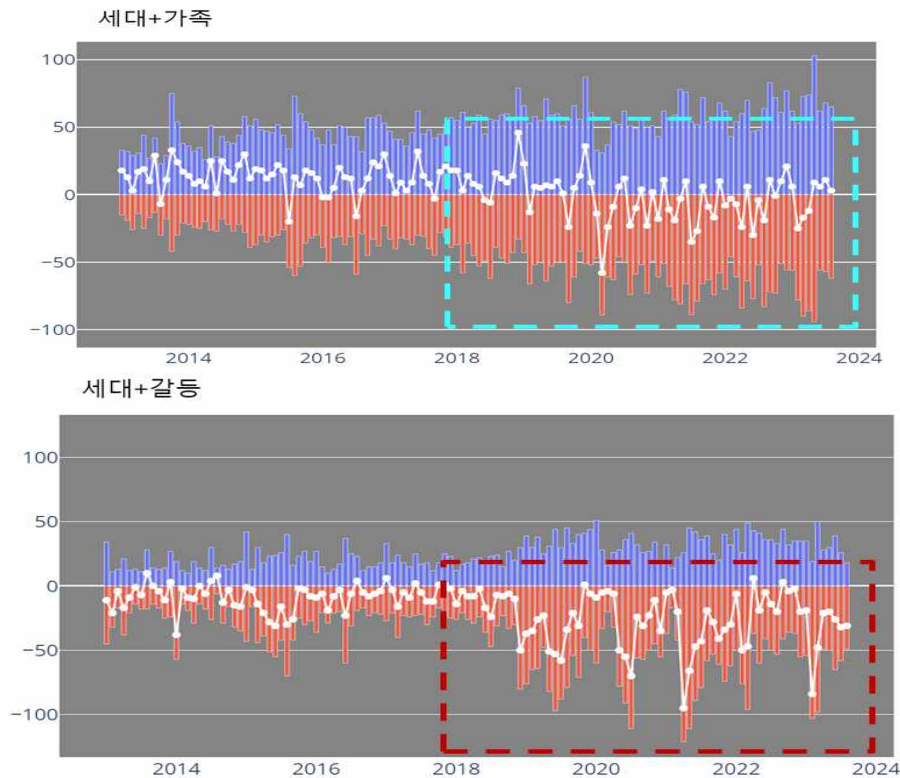
고령사회 진입 이후로 Ageism과 관련하여 섹션별로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주  
제별로 파악하였다. 우선 국제섹션의 경우 중립적인 성향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섹션  
과 사회섹션은 대체로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그림 3-10] 국내의 Ageism 관련 뉴스 섹션별 트렌드 감성분석 (상) 경제, (중) 사회, (하) 문화

위의 [그림 3-10]에서 상단은 경제 섹션에 대한 감성분석의 결과인데 대체로 부정적 이지만 흐름은 대체로 일관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사회섹션의 경우 고령사회 진입 시점을 기점으로 부정적 뉴스가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문화섹션은 달랐다. Ageism과 관련하여 키워드들이 대체로 긍정의 기사들이 많았고 2018년 고령사회의 진입 시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도 양상은 유지 혹은 더 증가된 모습을 보였다. 고령사회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의 기사들이 늘어났다.

감성분석의 결과 흥미로운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보았다. 아래의 [그림3-11]의 경우 세대와 가족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 긍정에서 부정으로 감성분석 결과 흐름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대와 갈등의 키워드 역시 긍정과 부정을 오가는 양가 감정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다, 2018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부터 부정적 기사의 흐름이 대폭 증가되어 부정의 감성이 극대화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1] Ageism 키워드별 뉴스 감성분석 (상) 세대가족, (하) 세대갈등



아주 유사하지만 미묘한 단어의 차이로 긍정과 부정이 갈리는 경우도 있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노화”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기사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오히려 다소 긍정에 가까웠던 반면, 대비 혹은 준비가 필요한 “노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대체로 부정적인 기사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오히려 2018년 이후로는 노후준비나 노후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지 이전보다 부정적인 흐름의 기사들은 오히려 미약하지만 감소한 것 같은 흐름을 보였다. 노화와 노후 키워드의 양으로만 비교해도 노화에 비해 노후에 대한 내용의 기사가 두배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2] Ageism 키워드별 뉴스 감성분석 (상) 노화, (하) 노후

또한 트랜스에 따른 감성분석에 있어, 정적으로 뜨는 키워드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

들로 “100세”, “노인 봉사”와 같은 키워드가 대체로 긍정적인 감성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 봉사”의 경우 긍정의 기사들이 많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봉사에 대한 기사가 감소한 탓인지 긍정의 추세선도 많이 하강하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그림 3-12] Ageism 키워드별 뉴스 감성분석 (상) 노화, (하) 노후

긍정적 감성을 보인 또 다른 키워드로는 가족의 형태 또는 구성으로 볼 수 있는 표현으로 “독거노인”과 “세대 가족”이 있었다. 독거노인의 경우 긍정과 부정의 기사들이 오락가락 흐름을 타면서 변동을 보이다가 2020년 정도 COVID-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거리두기와 함께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의 추세를 보였던 독거노인에 대한 기사가 갑작스럽게 부정적인 기사로 돌아선 것은 아닐까 싶다. 또다른 키워드는 “세대 + 가족”이었는데 긍정적인 기사의 양이 훨씬 많았던 반면 핵가족화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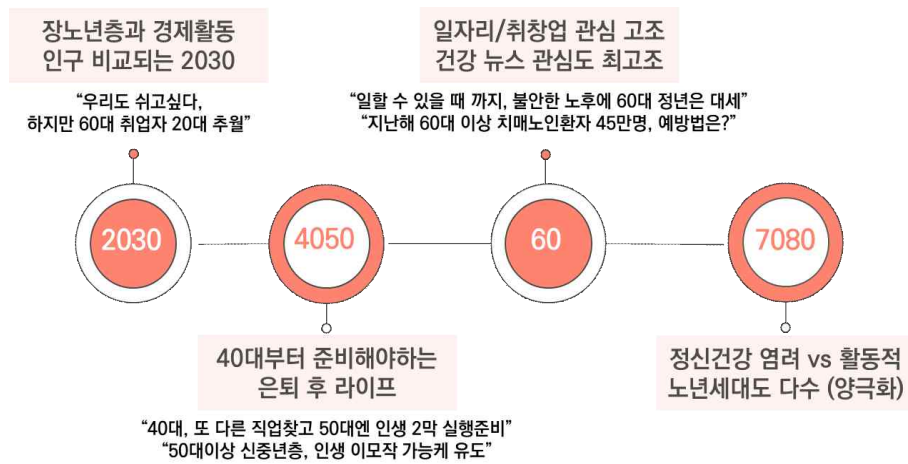
인구구조의 증가로 인한 탓인지 2020년을 기점으로 부정적인 기사가 더 많아지는 추세를 보였고 여전히 긍정과 부정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독거노인”과 “세대 가족”에 대한 키워드 감성분석은 아래 [그림 3-1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3-13] Ageism 키워드별 뉴스 감성분석 (상) 독거노인, (하) 세대가족

또한 Ageism 뉴스에 대해 AI가 뽑아낸 연령대별 기사의 제목들을 살펴본 결과, 2030의 세대는 노년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대상들과 취업 및 일 자리를 두고 비교되는 기사제목들이 나타난 반면, 4050대는 은퇴 이후의 라이프를 위해 대비하는 기사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드디어 노년세대로 보는 60대는 일자리나 취창업, 건강에 대한 뉴스에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로 기사의 양도 많았지만 키워

드들이 대체로 일자리나 건강과 같은 최고 관심사가 언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080대의 경우, 정신건강이나 건강과 관련하여 염려하는 기사들 혹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기사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반면 은둔 위축되는 노년세대와 반대로 매우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년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활동적인 시니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모습으로 양극화된 양상을 보였다.



[그림 3-14] AI가 뽑은 Ageism관련 연령대별 말말말

## 제4절 인터뷰 질적 분석

노년 세대와 청장년 세대를 중심으로 각각의 세대별로 개인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가 동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반구조화된 설문 문항을 가지고 세대별로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 생각해 볼 계기를 만들어보았다. 세대 갈등과 Ageism에 대해 각자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서로가 상대를 보는 이미지는 어떠한지에 대해 공유하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1. 청장년 세대의 인터뷰

먼저 청장년 세대가 바라보는 노년에 대한 이미지를 정리해보았다. 노인을 떠올렸을 때 어떠한 이미지가 떠올랐는지,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우선 노인의 모습은 다양하다는 의견과, 활동적인 노년 세대를 보았을 때 긍정적인 감정이 든다는 내용이 등장하였다.

“무조건 이 사회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뒷방 늙은이라고 하잖아요.. 뒷방으로 가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개인적인 견해가 될 수 있는데, 정년 65세 요새는 진짜 늙은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일하시는 분 중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소한 일이라도 백화점에서 쟁반 나르는 이런 일도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고, 횡단보도에서 교통 봉사 하시고, 저는 이렇게 자꾸 뭔가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또한 노년 세대를 생각하면 배제된 삶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는 의견도 있었다.

“배제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만 스킵된 사람들이잖아요. 스킵된 대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제외하고 건너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멈춰 서야 되는데, 노인이 있는데 노인을 빼고 보는 거예요.”

언론에서 노년세대와 청장년세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해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비취질 때가 많은데 인터뷰를 통해 만난 청장년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모아보았다. 우선 갈등이 생각하는 것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청년과 노년의 갈등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보도하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은데, 객관적으로 이성적

으로 생각해보면 그것은 청년과 노년의 갈등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대립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는 의견이다. 고속버스에 앞뒤로 앉은 승객 끼리 앞좌석에서 뒤로 너무 의자를 기울여서 싸우거나, 카페에 가서 자리만 맡아놓고 한참을 오지 않아 관리자와 손님이 다투고 이러한 이슈는 사실 굳이 세대를 밝힐 것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대립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의 갈등이 실제로 엄청나게 심각한 것처럼 부풀리는 작용들이 있는데 대부분 언론 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그 프레임은 상식과 비상식의 대립이라고 보거든요. 상식적으로 나의 편함을 통해서 타인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나의 자유를 너무 방대하게 쓰는거니까 ... 프레임을 노인과 청년의 갈등으로 짜가지고 언론에서 이렇게 계속 양산이 되니까 결국 싸움이 됐죠.”

노년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이라기보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여성 등 타자화 혹은 대상화 하는 것 자체가 모두 혐오의 표현이라고 보는 입장도 존재하였다.

“계단밖에 없는 공간은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배제할 수 밖에 없어요, 배제의 대상은 휠체어가 될 수도 유모차가 될 수도 있어요. 노인을 배제하는 순간, 다른 사회적 약자들도 함께 배제되는거나 마찬가지 ... 타자화, 대상화 모두 혐오 표현에 속한다고 고려했을때, 막연히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노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타자화, 대상화가 될 수 있고 취약성을 가진, 보호가 필요하다는 접근은 시혜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장년 세대가 생각하는 Ageism, 고령사회는 어떠한지 주관적인 의견을 질의하였다. 주제별로 의미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 우선 처음으로 등장한 주제는 바로 노년 세대에 대한 감사였다.

“어르신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본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덕분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거죠. ... 저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삶을 보면서 오히려 어떨 때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분들은 누구한테 의존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도래한 거잖아요. 소득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럼에도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로 폐지라도 줍자, 어떻게든 사회랑 소통하려는 모습이 멋지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동일하게 노년 세대의 인터뷰에서도 등장한 부분인데, 서로 상호 세대간 접점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요즘의 청장년 세대에게 노년세대와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 그러다 보니 서로를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노년 세대와

접점이 없고 서로를 모르다보니, 아예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 인식론적 부정에 대한 의견까지 등장하였다.

“치매 어르신, 할머니에 관한 경험도 저도 해보지 못했다면 잘 알지 못했을 거 같아요. 경험을 함으로써 얻게 된 지식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준 것 같아요. 감상이 끝났는데, 시간이 더 흐른 뒤에 다시 생각해보니 \*\*\*\*에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런 경험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히 분리된 하나의 에피소드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 정도로 남아 있지, 실제로 삶에서 모시고 돌봄을 하고 간병을 하는 경우가 잘 없다 보니 ... 그래서 사업을 기획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현장에 찾아갔을 때 어르신들과 상호작용에서 도대체 어떻게 반응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들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이렇까 생각해보면, 이유는 굳이 알 필요조차 없는, 몰라도 불편하지 않은 인식론적 부정이지 않을까. 늙어가는 신체, 노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해 본인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미디어의 역할을 지적한 부분도 있다. 미디어에서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미디어의 역할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살에 관련된 뉴스를 미디어로 전달할 때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은 보도해서는 안되는지 등등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노인과 청장년의 세대 간에서도, 혹은 노인혐오나 노인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디어에서 갖춰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소외되거나 혹은 더 갈등을 조장시키는 원인으로 만드는 거에 미디어의 역할이 있다고 보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이제 받느냐에따라서 인풋(input)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해석이 되고 아웃풋 되는 것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수용적 지식, 사고가 강한 사람들이지 비판적 사고가 강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디어 내용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청년층이다 보니까 미디어의 영향을 더 쉽고 빠르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한국사회 영역도 비슷하지만 미디어에서는 더더욱 윤리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막장 드라마에서 치매 어르신은 되게 애기처럼 행동하는 그런것들 뿐이라 이런 류의 이미지 생산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하지 않을까 절대로 미디어에서 자체적으로 안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고민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질병, 노화에 대해서 부정확한 미디어의 영향력도 은근히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냥 치매 생길까봐 무서워서 검사 받으러 왔어요 하고 오시는 분 되게 많아요. 사실 정상적 노화로도 건망증은 생길 수 있는데 내가 요새 깜빡깜빡 하는게 생각도 잘 안나고 이러니까 치매 아닌가 걱정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청장년 세대와의 인터뷰를 워드 클라우드로 나타나도록 텍스트 분석을 수행해보았다. 아래의 [그림 3-15]와 같은데, 주요하게 각자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풀어내다보니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의미있는 단어를 찾기는 어려운 결과였다.



[그림 3-15] 워드 클라우드로 텍스트 분석한 청장년 인터뷰

반면 노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도 청년세대와 유사하지만 조금은 다른 질문을 던져보았다. 노인이 된다는 것, 나이듦에 대한 의미를 각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알아보았다. 노년 세대들에게 노인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질의한 결과, 첫 번째로 정리할 수 있던 응답은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 이후에 노인 공경이 부재한 사회, 노년이라는 단어가 중립적이라는 의견이었다.

“농경시대에는 노인이 지혜의 원천 아니야. 낱씨를 예측하고 농사 짓는 노하우도 많고 가부장에서 최고는 할아버지란 말이야. 노인이 존경받을 땐 좋은 호칭이었겠지.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가정, 사회에서 노인이 세력을 잃으면서 안 좋은 이미지로 이해되는 것 같아. 청년, 중년, 장년, 그리고 노년. 노년이라는 단어가 중립적이니까 그나마 보편적으로 쓸 수 있지”

그리고 빠르게 발달하고 진화하는 사회에서는 모르는게 더 많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어르신도 계셨다.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자랑스러운 삶에 대한 마침표, 늙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나는 무식해지는거야. 옛날에 선생님은 유식했어. 내가 정년퇴임할때 학생들과 수련의 모아 놓고 한 얘기가 그때는 진심이었던 실감은 못 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의 선생이었지만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나의 스승이다. 왜냐면 그들은 계속 공부하잖아. 정보를 얻어도 더 많이 얻는거지. 여러분들이 신 지식을 얻으면 나한테도 좀 가르쳐주고 내가 묻거든 친절히 가르쳐주시오. 그리고 나왔어.”

“늙는건 자연 현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랑스러운 삶의 마침표잖아. 오늘날 노인들은 정말 어렵게 살았고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민주화, 다 희생해서 우리 한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든 주역들이죠. 자랑스러운 세대인데 고령사회에 여전히 일하는 노인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내일의 늙은이란 말이에요. 늙음에 대한 인문학적 교육도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늙는 법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 서글프고, 부끄럽고, 미안한 감정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다.

“나이가 든다는게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요. 65세 되어서 교통카드를 받으러 갔는데, 이제 돈 안내셔도되요. 이걸로 그냥 다니시는거예요라고 하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요. ... 나이 먹는다는게. 나 자신을 이렇게 사회에서 보호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웬지 사회에서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아직은 그래요.”

노년 세대 당사자에게 청장년 세대와의 갈등은 왜 일어나는지, 노년 세대의 어르신들은 세대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들어보았다. 어쩔 수 없는 변화이자 서로 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은 늘 있었어왔던 갈등이라고 보았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특히 노년 세대가 이미 그 시절을 살아온 선배로서 청년에 대해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시대의 변천이죠. 저만 해도 53년을 시부모님 모시고, 101살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한 가족으로 살았지만 제가 지금 며느리라고 산다? 어후 상상도 못하고 상상을 해도 안되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을 아끼고 축복해야 하고, 젊은 사람들은 어른을 공경해야 하는데 시대가 너무 각박하죠. 노인이 젊은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만치 않잖아요, 삶이.”

노년 세대와의 접점이 부재 하다보니, 청장년이 인식하기에 노인은 경쟁자이거나 아니면 사회적 부담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노인이 젊은 사람들에게 왜 외면을 당하느냐, 노인이랑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다 핵가족이니까. 또 돈 많고 건강한 노인이 많아요. 아니면 병상에 누워있는 노인들 때문에 사회적 경비를 부담해야 해. 앞으로 의학이 발달하니까 누워있는 노인보다 돈 많고 건강한 노인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젊은 사람들이랑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해, 계층 간의 이해 라는건 할 수 없어요. 근원적으로 경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두 세대 모르는거예요.”

청장년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나보다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달라는 당부를 전하시기도 했다.

“개인이 결정하고 선택할 부분이고, 국가나 사회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도 좋겠지만, 공동체의 개념이지. 다들 자기 입신양명을 위해 뛰어 다니는거 아니야. 성공하고, 출세하고, 업적 남기고, 돈 잘 벌고, 유명해지고. 이런 것들을 위해 청장년을 보내는거잖아. 그래도 삶의 한쪽에서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공동체라고 하는건 가족, 지역 커뮤니티, 회사, 종교나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넓게 보면 지구공동체까지도. 어려서부터 같이 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고. ... 우리는 같이 사는 거다. 필요하면 타협도 하고 양보도 하고 협력도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사회에도 좋고 미래에도 좋고 전 국가적으로도 좋고.”

“우리는 나가자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나,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는 어머니잖아, 할머니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자. 나가자 운동을 새벽 6시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해요. ... 크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자원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의 능력, 우리가 갖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나라를 만드는 거잖아요. 나, 우리집, 요것만 생각하는게 너무 강해. 함께 잘 가야 되고, 크게 생각해서 우리라는 것, 함께 라는 개념을 젊은 세대가 가졌으면 좋겠어. ...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어. 사고의 넓이를”



노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텍스트 분석해 보았다. 아래의 [그림 3-16]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노인들의 역할, 시니어, 가족과 가정, 자녀, 젊은이들, 건강, 복지, 행복, 기력, 관계, 아름답다, 기다리다의 키워드가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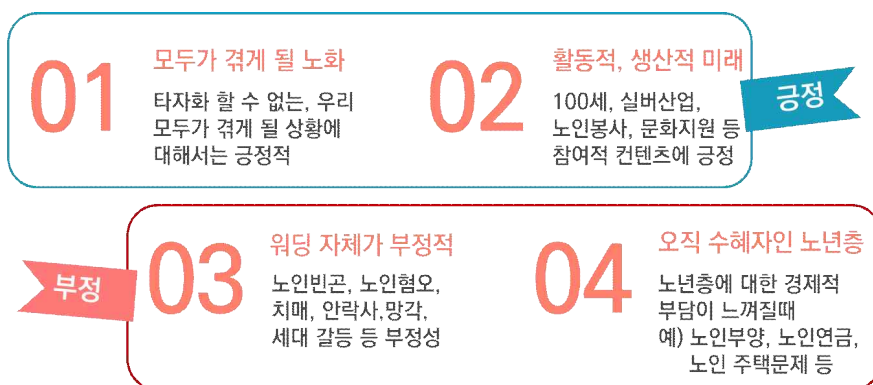


[그림 3-15] 워드 클라우드로 텍스트 분석한 노년 인터뷰

## 제5절 인사이트

Ageism에 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긍정/부정 감성분석을 통해 도출된 인사이트는 긍정으로 언급된 키워드와 부정으로 언급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긍정의 경우, 인간은 누구나 늙고 생애주기에 있어 노화나 노년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에 모두가 겪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미래라고 생각되어 그런지 긍정의 감정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00세, 실버산업, 노인봉사 등 사회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노년기에 접어들어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성공적 노화, 활동적 노년세대 관련 콘텐츠에 대해서는 긍정의 감정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워딩 자체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노인 빈곤, 노인 혐오, 치매, 안락사, 망각, 세대 갈등 등 부정성을 띄고 있는 단어 자체가 언급되는 경우에는 부정의 감정이 훨씬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적극적이고 활동적 노년과 상반되는 의존적인 느낌이 들거나 기여가 아닌 수혜적인 측면이 강한 단어일수록 부정적 감정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노인부양, 노인연금, 노인 주택 등 노년층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이나 부양에 대한 책임감 등이 부과될 경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3-16] 감성분석을 통한 인사이트

다수의 선행연구와 문헌 고찰을 통해 노인에 대해 Ageism이 나타나는 요인들에 대

해 정리하면 나이가 적고, 성별이 남성일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높을수록 (노화에 대한 지식의 부족),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수준이 저조할수록 노인혐오나 노인차별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었다.

이에 인터뷰를 통해 질적분석에서 찾은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Ageism에 대한 보호요인을 고려해보았다. 세대 간의 접점이 부족하고, 서로 상대 세대에 대한 이해의 노력을 하지 않다보니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노인에 대한 Ageism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은

- 1) 조부모-손자녀의 접촉 혹은 세대간 집단의 접촉 빈도를 높이고, 양질의 접촉을 자주할수록
- 2) 성격이 쾌활하고, 외향적이고, 성실하고,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보일수록,
- 3) 나이듦에 대해 지식이 있을수록(풍부한 노화, 노후에 대한 정보) 노년 세대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닌 화합과 융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 제4장 마무리

제1절 고령화 통계 및 정보

제2절 못다한 이야기



## 제1절 고령화 통계 및 정보

### 1. 연령주의(Ageism)의 개념

연령주의(Ageism)는 연령에 기반하여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사회적 이해, 부정적인 태도, 편견과 고정관념 등을 견지하는 것으로서 정서, 인식, 행동을 모두 포괄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North & Fiske, 2012). 연령주의에 대한 개념은 1969년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NIA)의 초대 소장이었던 Robert Butler가 최초로 소개하여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Sagieant, 2011). Butler(1969)는 “특정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에 대해 갖는 편견”으로 정의했으나, 이후 “노인과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적 태도를 체계화하고 차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Butler, 1975). 연령주의는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타인이나 자신에게 향할 수 있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다른 차별에 비해 널리 나타나는 개념이다(Levy & Banaji, 2002). 나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성별, 인종과 더불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특성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연령주의는 인종차별주의(racism)나 성차별주의(sexism)처럼 연령을 이유로 편견을 갖거나 사람에 대해 부당한 처우 및 차별(discrimination) 하는 것을 의미한다(Palmore, 2001).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가 사람의 생물학적인 인종(피부색), 성으로 차별을 받는 것처럼 연령에 따라 편견을 체계화하고 차별하는 것이 바로 연령주의이며 3대 차별에 속한다(Butler & Lewis, 1973; Palmore, 2001).

Butler(1995)는 연령주의에 대해 가장 잔인한 거부(rejection)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다(Sagieant, 2011). 연령주의는 피해와 불의, 불이익을 낳기도 하고 세대 간의 연대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나이를 기반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범주화 할 때 발생하는 연령주의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는 구분이 되기도 하는데,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에

게 기대되어지는 사회적 역할이나 행동 양식인 연령 규범에 기인하여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표명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성차별과 인종차별은 신체적인 차이에 기반한 배제 행동이지만, 연령주의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고 늙어가게 될 나이를 토대로 차별이 이루어진다(Pope, 2017). 연령에 대한 부당한 태도와 고정관념은 노년층에게 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주의는 주로 노인 문제를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김옥,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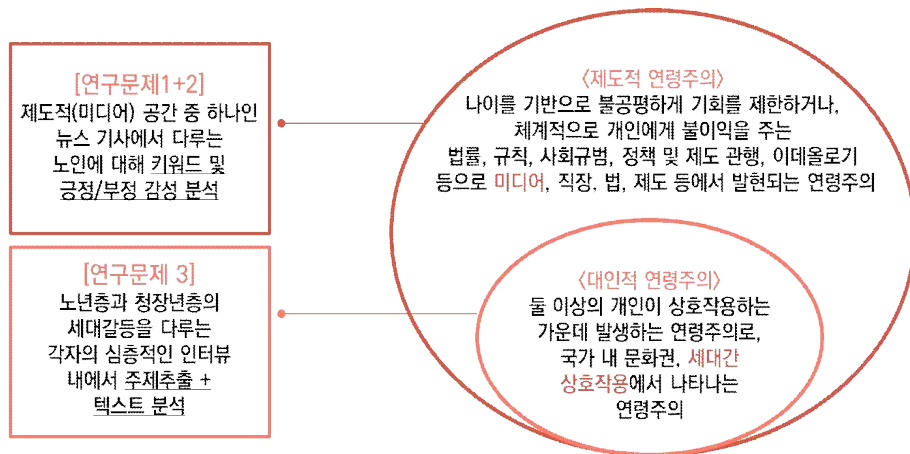
연령주의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주의에 대한 정의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 연령주의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Butler의 고전적인 개념을 따르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활용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연령주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McGowan(1996)은 Butler의 연령주의에 따른 원인, 결과, 대응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부분이 있지만 연령주의에 대한 개념적 측면에서 복잡성을 다룬 연구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종의 개념 환원(conceptual reduction)에 도달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Bytheway(2005)는 고전적인 연령주의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차별에만 주목하여 ‘노인(the elderly)’라는 집단을 ‘우리과 그들(us and them)’로 나누어 다른 범주에 속한다는 가정 자체가 차별이기에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Butler가 정의한 ‘노인’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생물학적인 연령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우리와 그들을 나눈다는 점에서 고정관념을 유발하는 한계를 지녔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연구도 뒤를 이었다(Iversen, Larsen, & Solem, 2009).

연령주의는 평생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연령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고정관념(어떻게 생각하는가), 편견(어떻게 느끼는가), 차별(어떻게 행동하는가)로 정의한 다면적 사회현상이라고 보았다. 3가지의 차원에서 고정관념(사고)과 편견(느낌), 그리고 차별(행동 또는 행위)로 나뉘고, 3가지 발현수준으로 제도적, 대인적, 자기지향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Ageism은 명시적(의식적), 또는 암묵적(무의식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연령주의는 고정관념(stereotype)으로, 사회집단 구성원의 특성에 대한 우리의 신념과 기대를 저장하는 인지 구조, 고정관념화(stereotyping)은 고정관념화 된 정보를 적용하는 과정, 고정관념은 사회적 행동을 유도하며,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고 기억하

는 지를 지배한다고 본다. 2번째 편견(prejudice)은 어떤 사람이 소속된 집단을 바탕으로 그 사람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 또는 느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편견은 집단 간 계층적인 관계를 만들거나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특히 연령주의(Ageism)의 경우, 대상의 나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일어날 수 있다. 차별(discrimination)은 사회적으로 두드러진 집단에 사람들이 속한 것으로 인식되거나 실제로 속한 경우 적용되는 행동, 실행 및 정책으로 구성된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의 불이익(부정적 차별)을 주거나 이익(긍정적 차별)을 부여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Ageism의 발현은 우리의 연구문제와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자기 지향 연령주의는 스스로에게 향해진 연령주의로, 반복적으로 연령에 기반한 편향에 노출되면 주변 문화로부터 편향을 내면화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내용은 대개 다루지는 Ageism과는 차이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연령주의의 발현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문제와 연관지는 내용을 아래의 [그림 4-1]을 통해 제시하였다.



[그림 4-1] 연령주의의 발현과 연구문제 매칭

연구문제 1번에서 다루지는 제도적(미디어) 공간 중 하나인 뉴스에서 다루는 노인에 대한 키워드로 긍정/부정의 감성분석을 하는 것은 제도적 연령주의에 빗대어 볼 수 있다. 나이를 기반으로 불공평하게 기회를 제한하거나 체계적으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



는 법률, 규칙, 사회규범, 정책 및 제도 관행, 이데올로기 등으로 미디어, 직장, 법, 제도 등에서 발현되는 Ageism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대인적 연령주의인데 둘 이상의 개인이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연령주의로 국가 내 문화권, 세대 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연령주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부분 역시 노년층과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고, 세대 간 서로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를 통해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자 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결지어 살펴볼 수 있다.

## 2. 고령화 실태와 통계 수치

### 1) 고령화 실태 및 고령화 속도 (2023 통계청, 고령자통계)

통계청의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중 18.4%인 949만 9천9백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로, 2024년에는 1,000만명을 넘고 2025년에 이르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빨라, 고령화 사회에서(7%)에서 고령사회(14%)로 도달한 기간이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하는 시기가 7년으로 전망되어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국가가 되었다.

### 2) 초고속 고령화, 왜 체감하지 못할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

초고속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아직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인구가 젊고 많은 인구가 도시에 몰려있기 때문에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OECD국가 중 한국은 호주와 함께 65세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문제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사고가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농어촌 지역의 상황을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의 특이성으로 인해 고령화가 빠르고 길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볼 수 있는 단카이 세대도 3-5년, 미국도 길어야 10년을 잡는데, 우리나라는 195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약 20년 정도를 잡고, 현재 이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

기 시작했다고 보고하였다. 베이비 부머의 규모가 워낙 큰 인구구조이기에,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속도로 고령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 3) 노인자살 실태 (2023 자살예방 백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2023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최근년도 기준 OECD 회원국의 노인 자살률은 평균 16.3명인 것에 반해,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41.7명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파악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민 생애주기 중 노년기 이후로 자살률이 급증하며(70대 71.8명, 80대 이상 61.3명), 특히 남성 노인의 자살률은 68.4명, 여자는 22.0명으로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따라 사회적 역할의 축소, 경제적 능력의 감소, 노화와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능력의 상실,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 등은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높여 자살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 4) 글로벌 고령화 실태와 노인 빈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과 성장전략 국제 컨퍼런스)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OECD 국가들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여 1960년 대비 2020년에는 평균적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40%에 달해, OECD국가 중 가장 고령인구가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금제도, 공공부조(공공의료비), 노인 빈곤 등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OECD 모든 국가에서 피부양자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연금제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1년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39.3%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상대적 빈곤율은 월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로, 임금근로자 평균 중위소득 250만원의 50%인 125만원도 채 벌지 못하는 노인이 10명 중 4명이라는 의미이다.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다는 것은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도 퇴직연령을 연장하거나, 고용주들이 고령의 노동자를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사회에서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 5)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 (제니버 D. 스쿠바 교수)

정치인구학 전문가인 제니퍼 스쿠바 교수는 세계 인구의 추세를 분석하여 고령화가 모두의 미래이자 산업화 이후 국가들의 표준이 되었기에 변화에 맞게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충격적이며, 지금의 속도라면 2062년에 한국의 중위연령은 62세가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미는 인구 절반 이상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7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인구 절반(46.4%)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고, 중위연령이 62.2세로, 60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았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기준 3,669만명에서 1,737만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비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 역시 2023년 26.1에서 2070년 이되면 100.6으로 늘어 285%가량 증가하는 수치이다. 이는 지금은 생산연령인구 약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2070년이 되면 생산연령인구 1명이 1명의 노인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 6) 노동시장의 고령화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의 부문별 취업자 연령 분포,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및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의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취업자 평균연령은 약 46.8세라고 한다. 그러나 다가오는 2030년에는 평균연령이 50세를 넘어서, 2050년에 이르면 53.7세로 예측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2050년 취업자 평균연령이 43.8세인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0년 정도가 더 많은 셈이다. 이미 지역별로 50세 이상 취업자의 비율이 절반 이상인 곳도 있다. 전남(58.7%), 경북(55.2%), 전북(53.9%), 경남(51.7%)순으로 일자리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은 아닙니다. 2031년까지 주요 7개국(G7)의 노동인구 1/4가 55이상의 고령자가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를 반증한다. 이미 2021년에 일본은 고령 노동자의 비율이 31%에 달했고, 2031년에는 38%에까지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력의 고령화 원인에는 출산율 저하, 교육기간의 증가로 인한 청년층 노동력 유입의 감소 등을 꼽는다. 독일도 고령자의 고용률이 유럽연합(EU)국가 가운데 스웨덴, 덴마크 다음으로 높다. 정확히 65세 이상의 노년

은 아니지만, 만 55세이상 64세 사이의 고용률은 72%에 달한다. 사회가 고령화가 될 수록 여전히 건강하고 생산성 있는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는 실상 노인일자리가 공익형이 대부분이라 급여도 현실적이지 못한 수준이었다. 이에 민간기업의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이 노인을 장기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노인과 구인 기업이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의 개선, 근무조건이 유연한 탄력적 일자리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 7) K-조부모의 육아, 늙어서도 끝나지 않는 육아전쟁

(‘서울시 양육자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및 BC카드 데이터사업본부 분석자료)  
‘서울시 양육자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중 84.7%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추가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 56.9%, 초등기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41.7%는 주요 돌봄 조력자가 '조부모·기타 친족·이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자녀 양육에 있어 적극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조부모라는 것을 의미한다. BC카드에서 60대 이상 고객의 업종별 결제액 증가율을 파악한 결과, 전년대비 키즈카페가 54.7%, 소아과가 5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시대에 맞벌이 자녀를 대신한 K-조부모의 황혼육아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2022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황혼육아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자발적으로 육아에 참여한 경우가 72.2%에 달했으며, 손주 육아 시 느끼는 어려움으로 63.9%가 신체적 한계를 꼽았고, 손주를 돌보는 대신 '여가와 취미'를 포기했다고 67.9%가 응답했다. 노인이 되어서도 이어지는 육아에 적당한 돌봄은 자녀 및 손자녀와의 관계로 긍정적인 사회성에 도움이 되지만 체력저하 및 여가 축소, 노후 재정문제 등은 부정적 요소로 남아있다. 이에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부모 등 4촌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육아조력자 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조부모들 75.6%가 해당 정책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자녀 수가 늘어난다면 비용도 증가하여 1명은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이지만 수혜가 가능한 대상의 소득기준 및 지원기간(최대 12달)은 제한적이다. 지원 기간의 연장이나, 소득기준의 완화, 그리고 물가 및 육아 시간을 감안한 수당의 다각화도 필요해보인다.

#### 8) 폐지수집 노인 <GPS와 리어카>

(KBS 뉴스의 연속보도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폐지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

KBS에서는 2022년 <GPS와 리어카>라는 제목의 뉴스를 연속보도 하였다. 생계형으로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 10명을 섭외하여, 리어카에 GPS를 장착하고 노동의 강도를 파악한 것이다. 폐지수집 노인들은 하루 평균 13km를 걸으며 11시간 20분의 장시간 노동을 했고, 새벽에 일을 시작하여 밤 늦게까지 움직였다. 그러나 폐지 1kg당 120원 수준으로 대가를 지불받아 (2022년 기준) 더 나은 고물상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제시간에 식사를 못하고 아예 끼니를 거르는 경우도 부지기수였고, 주택가에서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다니기에 사고의 위험도 컸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폐지수집 노인현황과 실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폐지를 팔아 생활하는 노인은 전국적으로 최소 1만5천명이며, 전체 폐지 수집 노인 중 68.5%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폐지를 수거하며 한달 평균 소득은 2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단독주택 폐지 재활용 중 약 60.3%의 양을 폐지수집 노인이 수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위험한 노동환경 개선과 안정적으로 그리고 보다 높은 시세로 수거한 폐지를 매입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와의 연계, 나아가 수거를 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빈곤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9) 디지털 불평등 (Digital divid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서 + 서울디지털재단의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에 키오스크 운영 대수는 2019년 18만9,951대에서 2022년 45만4,741대로 3년 사이 2배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카페나 음식점과 같은 요식업에서는 2019년 5,479대였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8만 7,341대로 16배 가량 급증했다. 키오스크의 보급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은 디지털이 만연화된 일상에서 소외되고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키오스크의 이용률은 감소한다. 55~64세는 68.9%인 것에 반해, 65~74세는 29.4%, 75세 이상은 13.5%가 키오스크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어렵다는 이유가 33.8%로 다수를 차지했고, 뒷사람의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이 17.8%로 뒤를 이었다. 키오스크 뿐 아니라 현장 예매를 하지 않았던 한국시리즈의 야구 티켓 예매, 명절 연휴 승차권 예매 등은 온라인과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디지

털 격차를 만들어 내어 또 다른 차별과 불평등을 양산한다.

#### 10) 노인 의료비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보험급여편)")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지급한 진료비(건강보험 부담금 + 본인 부담금)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105조 8,586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또한 전체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875만명의 노인 인구가 사용한 진료비는 45조 7,6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하였고, 이는 전체 진료비 가운데 43.2%를 차지하였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코로나19와 고혈압 진료비는 각각 304.5%, 6.7% 증가했고, 연평균 1인당 노인 진료비는 53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2% 상승하였다. 이는 전체 인구 1인당 진료비인 206만원보다 약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 500만원 이상의 고량진료비 환자 가운데 10명 중 7명이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392만명의 고량진료비 환자 가운데 노인환자는 262만명으로 66.9%에 해당된다.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한 거시적,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인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정 전망이나 의료비의 증가 추세를 보았을 때 노인 의료비 부담이 청장년층의 몫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11) 노노케어 간병대란

(일본 NHK 다큐멘터리 "간병살인" 책으로 엮은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인구 10명중 3명이 노인인 일본은 간병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오랜 간병에 지쳐 가족의 목숨을 빼앗는 간병 살인에 대해 NHK에서 다큐멘터리로 다루었고, 이에 대한 내용은 2017년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책으로도 출판되었다. 일본에서 간병 살인은 연간 40여건, 거의 1주일에 1건씩 발생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에서는 2050년에 이르면, 2019년에 비해 1인당 평균 간병비가 75%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산한다. 인구비중이 큰 단카이 세대(1947년~1949년 출생)가 모두 75세를 넘기기 때문이다. 일본은 "개호(介護·돌봄)"보험제도를 2000년 도입하여 고령자의 간병에 대해 급여의 70~90%를 사회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했고 간병부담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후생노동성에서 "개호" 관련 통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 환자는 사적 간병비를 지출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빠르게 고령화되는 우리나라의 간병 부담도 문제가 되고 있다. 양질의 요양시설이 부족하고, 간병을 가족 내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에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의 '사적 간병비 규모추계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정책적 시사점'의 논문에 따르면 연간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18년 8조원 규모이며, 유급 간병인의 비용과 노동 손실 등을 합친 간병비의 추계액은 연간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국가적 통계도 부재한 상황이라, 실태 파악이 어렵다.

#### 12) 노인대상 재산 범죄 (대검찰청 공시자료)

대검찰청에서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2017년 5만7661건에서 2021년 7만9188건으로 5년 사이 약 2만2천건(37.3%)가 증가하였다. 전체 재산범죄 피해자 중 노인의 비율 역시 같은 기간 동안 10.6%에서 13.5%로 늘었다. 은퇴나 신체능력 저하로 근로 소득이 줄어든 노인들에게 투자 유혹을 하거나, 새로운 관계 형성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친근감을 형성하여 접근하거나, 새로운 기술이 익숙치 않은 노인들을 현혹시켜 범죄에 노출되는 것이다. 노인 대상 다양한 유형별 범죄에 대한 실태파악과 더불어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등 흔한 범죄수법에 대한 노인대상 교육이 필요하다.

#### 13) 노인대상 성범죄 (경찰청 자료)

인구 고령화 속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 노인 1인가구는 138만 5천가구로, 남성노인 1인가구가 58만 9천가구인 것에 비해 2배이상 많고, 매년 늘어감에 따라 여성 노인이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60세 이상 범죄는 15만7314건에서 17만2053건으로 9.5%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발생한 범죄가 158만751건에서 148만2433건으로 6.2% 감소한 것과 대조적인 수치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60세 이상 노인 대상의 성범죄는 2018년 765건에서 2022년 948건으로 약 24% 증가하였다. 노인 성범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파악도 어렵다. 성범죄 피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피해를 입어도 신고 의식이 부재하거나 주변 시

선에 상담조차 꺼리는 경우가 많아, 드러나지 않은 수치까지 고려하면 범죄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나 가족폭력, 아동학대 등과 달리 노인 대상 범죄는 수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부재한 것 역시 큰 문제다.

#### 14) 노인학대 (보건복지부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 학대의 신고건수는 1만9391건으로 2020년 대비 약 14.2% 증가하였다. 학대의 피해 가구 형태는 노인부부가 34.4%, 자녀동거 31.2%, 독거노인 17.6% 순으로 파악되었다.

#### 15) 노인차별 (2018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우리나라의 노인 차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청년층 80%가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젊은 세대는 고령자에 대해 경제적 부양부담이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가치관조사에 따르면, 사회의 고령화율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나 존경도 줄어든다고 보고한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7년만에 진입할만큼 고령화속도가 빠른 나라인만큼, 노인에 대한 공경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 16) 노인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노인인권 침해와 관련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국 65세이상 노인 1천명과 19세 이상의 청장년층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9~39세의 청년층 80.4%는 '우리사회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있고 이로 인해 노인 인권이 침해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노인-청년간의 갈등에 있어서 청년층은 81.9%가 심각하다고 인정한 반면, 노년층은 44.3%가 그렇다고 인식하였다. 청년층에서 훨씬 더 심각하게 혐로현상을 지각하고 있음을 반증한 결과다. 청년들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배경에는 일자리, 연금, 복지 비용 등이 있다. 청년층 56.6%가 노인일자리의 증가 때문에 청년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응답했고, 77.1%는 노인복지의 확대로 청년층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보고하였다. 고령화로 인해 늘어가는 노인인구 부양에 대한 부담이 결국 노인



대한 반감과 혐오를 가져왔다.

#### 17) 낯대 문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수행한 연령주의 실태에 대한 조사에서, 고령자에 대한 인식을 '노인은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많이 한다'에 71.7%가 동의하였고, '노인은 실력보다 나이, 경력, 직위 등으로 권위를 세우려 한다'에 63.7%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고령자에 대해 권위주의 의식을 기반으로 한 부정적인 편견이 팽배함을 알 수 있었다.

#### 18) 노년부양비 부담

(2019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UN 201개국의 노년부양비가 2019년 14.0명에서 2067년 0.2명이 될 것으로 전망한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20.4명에서 2067년에는 10.24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여 노인 부양 부담이 실제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100명에 대한 고령(65세이상)인구의 비율을 의미)

#### 19) 노인에 대한 인상(편견과 선입견)

영화 '수상한 그녀', 책 '퇴적공간' 중

나문희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수상한 그녀'의 도입부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교수(성동일 배우)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노인을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편견과 선입견은?" 이에 학생들은 주름, 검버섯, 궤궤한 냄새, 그리고 탑골공원을 말한다.

'퇴적공간'의 저자 오근재 교수는 '탑골공원'에 대해 '사회에서 쓸모를 인정받지 못한 잉여적 존재가 되어가는 인간군이 하구의 삼각주처럼 퇴적된 공간'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에서 노년층에 대한 조롱과 혐오를 담은 표현으로 Boomer Remover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를 없애겠다는 섬뜩한 단어는, 우리나라에 등장한 틈딱, 연금충, 할매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 20) 무상교통, 공짜 지하철 운임이 만들어 낸 노인혐오

(2022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의 생애사를 통해서 본 인권상황 실태조사)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서 '노인 혐오와 차별'은 무상교통 등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지나치게 시혜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인식은 대중 공간에서 노인 혐오와 차별이 발생할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노인을 경제활동 인구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노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비하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경로승객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2000억원 이상이라고 한다. 경로 우대 차원에서의 복지 혜택이지만, 노년세대에게는 경비 업무와 같은 경제활동을 위한 출퇴근길 교통수단이자 실버택배를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다. 소수의 노인이 지하철에서 보인 눈살 찌푸릴 행동,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운임 부담과 적자 실적은 청장년층에게는 오해를 만들고,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세대간 접점의 부재, 소통 부족은 우리 세대가 계속 가져가야 할 사회적 숙제다.

### 3. 인터뷰 별 주제분류: 고령화 실태

#### 1) 노인 경제적 자립을 위한 폐지수거

- 러블리페이퍼 기우진 대표

노인에 대한 민간 차원에서의 후원과 지지는 좀 약하죠. 국가가 이미 많이 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 요새 같은 경우 자립 준비 청년 이런 데는 이제 국가나 민간이나 많이 돈을 쓰고 있는데 노인은 여전히 좀 돈을 안 쓰거든요. 많이 썼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한 고리가 더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제 환경을 붙인 거죠. 노인과 환경. 노인과 환경의 공통점이 이제 폐지수거 어르신이다. 그래서 저희는 폐지수거 어르신들을 자원 재생 활동가라고 부르거든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 자원 재생 활동이 우리 사회에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유의미한 이제 그 가치가 있다. 사회적으로는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과정에서 자원 재활용률 2위인데 특히 폐지 회수율은 1위거든요. 80%가 넘어요. 거기에 전체 2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어르신들의 역량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분들이 폐지를 줍지 않으면 또는 다른 폐자원들을 수거하지 않으면 그거를 지자체에서 수거를 자체적으로 위탁 업체한

테 돌려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증가가 발생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세이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 자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800억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한 분당 9톤의 폐지를 이제 수거하시는데 연간 그거를 나무로 환산하면 30년생 소나무가 80그루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은 그냥 단순히 불쌍하고 안타까운 활동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름부터 우리가 폐지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낮은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상쇄하고 자원재생활동가라는 이름을 붙여 주자.

## 2) 노인빈곤과 노인 취업률

### -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임춘식 회장

한국의 노인 빈곤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노인 자살도 제일 많이, 수입도 제일 적는데 반면에 한국 노인은 일하면서 살지 않으면 노후생활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노인들이 가장 흔한 말로 노인 취업률이 높거든요

일을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사회적 복지 체계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나라 같은 경우는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예측하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의 대응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빛의 속도로 늙는 국가가 됐어요.

마땅히 자녀로부터 사회로부터 대접을 받아야 할 그들의 공로가 죽을 때까지 쉴 틈 없이 일하다가 죽는 노인들이 많다. 사회적 일자리 그것도 우리나라가 지금 취업률이 높다고 그러는데 노인 일자리 때문에 취업률이 높은 것이지 노인 일자리는 평균 현재 연 천만원 월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원하지 않고 방치한 일자리의 틈새를 노인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 홍콩도 대만도 노인과 젊은이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많아요. 공장에 그래서 우리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에서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고 청년과 공존한 일자리 마련해서 몇 가지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젊은이하고 노년하고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술도 마시면서 밥 먹는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 3) 노인도 다 같은 노인이 아니다? 열정적인 노년기

- 한국동화사회적협동조합 - 이규원 이사장

노인 하면 아무래도 이제 기력이 없다. 사실 그 기력도 신체적인 기력은 어차피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세가 들어도 이렇게 생명력 있게 눈빛이 살아계신 분이 계시고 나이가 드니까 축 쳐져서 모든 그 무슨 고뇌를 다 안고 있는 사람 같은 그런 표정 ... 어떤 어쩔 수 없는 한계점 같은 게 있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본인들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 자세로 사는가 이것에 따라서 양분화가 되는 것 같아.

65세 하면 요즘들은 너무 젊었어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인생을 노년기로 들어간 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지 우리는 65세가 많거든요 젊은이 못지않게 뭔가 제2의 인생을 값지게 살고 싶다는 열망이 굉장히 강해요.

### 4) 인생의 후반기지만 에너지 넘치게 살고싶은 노인

- 한국동화사회적협동조합 - 이규원 이사장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늙었다고 그냥 이렇게 처지는 게 아니라, 끝없이 미지에 대한 그런 탐구력 같은 거... 내 인생의 후반기지만, 또 노년기로 죽음을 앞으로 맞이하러 가는 길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환희 기쁨 이런 걸 느끼면서 살아야지 에너지가 나오면서 건강하고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고 정확한 나를 잡아가고 내게 잠재 되어있는 능력을 키울까 그런 생각을 해라

## 4. 인터뷰 별 주제분류: 노인 공감 / 노인 이해하기

### 1)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려는 노인의 용기

- 러블리페이퍼 기우진 대표

지금 우리 시대의 어르신들한테는 저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움이 있어요. 저는 역사를 대안학교에서 가르쳤어요. 한국사를 가르쳤는데, 기본적으로 역사를 보면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 일을 누릴 수도 없고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는데 우리 기준에서의 과거는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본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덕분에 우리나라 우리 국가를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거죠. 그거는 제가 어르신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야. 고맙습니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진심인 거고 어르신들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우리한테 이제 지금은 우리의 미래가 돼버렸지만 그분들의 삶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폐지 어르신들의 삶을 보면서 오히려 어떤 때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누구한테 의존적이지 않아요. 자신의 삶의 문제가 일단은 도래한 거잖아요. 나 소득이 없어,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나 어떻게 해든 해결해야 돼. 해쳐 나가겠다는 의지로 폐지라도 줘. 은둔형 외톨이, 니트족 청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거기서 뛰쳐나와서 어떻게든 사회랑 소통하려고 어떻게든 사회 안에서 자기를 녹아내려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멋지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 2) 지하철 노인에 대한 오해

### -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임춘식 회장

아침 5시부터 6시 반 7시까지예요. 노인들이 진짜 절반이 넘어요.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늙은이들이 미쳤다고 저 새벽에 다니냐. 전부 출퇴하는 사람들이예요. 근데 그 일터가 뭐냐면 지금 현재 약 서울 시내 4만5천명 아파트 경비가 6시에 교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침에 새벽부터 이렇게 타고 다니느냐 삶의 터전에 가는 거고 젊은이들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않고 이렇게 우리한테 부담을 주느냐 묻지도 못하고 지하철 내에서도 노인들하고 싸워

## 3) 젊은이들을 축복하는 노인

### - 한국동화사회적협동조합 이규원 이사장

어쩔 수 없는 시대의 변천이죠. 우리는 저만 해도 53년을 시부모님 다 모시고 101살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족으로서의 이렇게 살아왔지만 지금 세대에 제가 며느리하고 산다? 상상도 못하는 거고 상상을 해도 안 되는 거

고. 이게 시대의 변화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정말 아끼고 그들을 축복을 해줘야 되고 또 나이 어린 사람들은 어른들을 좀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데... 시대가 너무 각박하게 애들의 삶의 현장을 너무 힘들게 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노인들보다 젊은 사람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만치 않잖아요. 삶이.

#### 4) 나가자 운동: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기를 위해!

- 한국동화사회적협동조합 이규원 이사장

우리가 지금 능력이 없잖아. 돈 있어서 뭐 좋은 일도 하고 싶지만 못하니까. 나가자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는 어머니잖아, 할머니고.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나가자 운동을 새벽 6시마다 공동으로 하는 거죠. 아침 6시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요. 눈 감고 종교가 어떤 거든 관계없이 나라를 위해서. 왜 우리 나이에는 이제 65세 70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나라가 잘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복지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나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는 나가자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은 참 뒤에서 튼튼한 노인으로서의 정신적인 자산이 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켜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 5) 노인은 양보해야

- 이화여대 정신건강의학과 이근후 명예교수

그래서 노인이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자면 양보해야 돼. 양보 없이는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그게 통할지 몰라도 안 통해, 양보해야 된다. 양보. 젊은 사람들 아이디어를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지 말이지. 내가 경험이 많다고 그런 거 다 뺏어가지고 그럼 인생 1모작이야. 1모작 때 잘해가지고 저축을 많이 해놓은 사람, 건강 경제 이런 걸 해놓은 사람은 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 6) 지하철 빌런(노인)의 이유는 자격지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김동배 명예교수

요즘은 젊은이들 세계인데, 내가 뭐 하는 일도 없으면서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럼 자

리 하나 차지하고. 밥 먹으면 쌀 축내고 말이지. 자격지심. 젊은이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은 크게 느껴. 그래서 위축이 된다든가 과잉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말썽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지 않겠나...

## 5. 인터뷰 별 주제분류: 노인 혐오 원인

- 1) 노인을 경험한 청년세대의 부재, 건강한 노인을 경쟁자로 인식하는 청년세대
  - 이화여대 정신건강의학과 이근후 명예교수

노인은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가지인데 현재는 그게 문제예요. 앞으로는 달라지겠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왜 외면을 당하느냐 몇 가지 내 혼자 생각한 게 있어. 노인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다 핵가족이니까 말이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두번째로는 건강한 노인이 또 많아요. 돈 많고 건강한 노인이. 건강한 노인은 젊은 사람들의 경쟁자야. 회사에서도 경력자 뽑는 게 낫지. 지금 들어와가지고 새로 가르쳐 가지고 숙련되게 만들자 하면 10년 걸릴지도 모르는데 누구를 뽑겠어 경쟁자니까 호감을 가질 수가 없어. 다른 하나는 병상에 누워 있는 노인들이 이런 사회적인 경비 부담을 누가 해야 돼. 젊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노인은 젊은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야. 요새 뭐 갖다 버리는 사람들도 많잖아. 요양원으로 돈 버는 거지.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의학이 발달하니까 누워있는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젊은 사람들과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돼. 내 생각은 65세가 정년이라고 하면 65세는 청년이야. 요새 분류로 말하면 75세까지는 청년이야. 의학이 발달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보다 건강하게 일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다, 경쟁자가 더 많으니까 계층 간에 이해라는 거는 할 수가 없어. 그거는 근원적으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 2) 노인 부양부담이 아니라 연금 운용에 대한 국가 신뢰 부족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김동배 명예교수

북유럽 복지국가라고 하잖아. 거기에서 키포인트는 연금이 안정적이다. 그래도 불만 없이 내가 은퇴하면 상당 부분을 받는다는 거에 대한 믿음. 정부가 그것을 잘 운용했다

라는 거에 대한 믿음. 그것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둬도 불만 없이 내는데, 과연 정부가 우리나라 연금관리공단이 이것을 그렇게 할 거냐고. 정부가 국가가 내 재산을 잘 지켜 줄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사회 자체가 불안해져가지고 사회가 와 해될 수 있어.



## 제2절 못다한 이야기

Ageism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으로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개입 가능한 방법을 고려해보았다. 대표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바로 교육이다. 연령주의(ageism)감소를 위해, 고정관념, 편견, 차별 줄이기 위한 정보, 지식, 기술 및 역량을 전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세대 간 접촉의 요소를 포함하거나 결합하는 개입방안이 가장 효과적인데(by 집단간 접촉이론) 관점 전환과 공감 증가를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이 감소(교육효과: 저연령<청소년)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 나이듦에 대한 교육, 세대 간 봉사: 단기/일회성 아닌 장기적/전략적 개입

또다른 개입의 방법으로는 캠페인이 있다. 특정 기간동안 체계화된 커뮤니케이션+여러 방식으로 전달되는 일련의 메시지로, 대중에게 정보 제공을 통해 지식/인식의 향상 및 행동 변화 도출할 수 있다. 기간이 길고, 노출의 강도가 클수록 효과적인데 전시를 통한 캠페인 효과로 프레이밍이 가능하다. 프레이밍(framing)이란, 한 문제가 어떻게 소통되며, 어디에서 시작되고, 무엇이 강조되고 어떻게 설명되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태도/행동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를 통해 10년치의 Ageism 관련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크롤링하고, 관련 키워드를 기반으로 감성분석을 수행하고, 이러한 양적 빅데이터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인터뷰를 통해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뷰이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보았다. 공통되게 세대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key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세대 간 접점을 늘려나갈 수 있는 활동이나 교육을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포도 뮤지엄에서의 전시에 노년층의 도슨트 혹은 큐레이터를 봉사자로 활용하거나 노년 세대와 접점을 늘려나갈 수 있는 전시 외 교육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드리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노인복지를, 노인의 인지기능을 연구하는 세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각자 학문의 경계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융합연구를 진행한 감사한 기회였다. 이러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티앤씨재단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